

배 현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장애여성의 미용실태 조사와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2011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피부비만관리학 전공

김 수 진

배 현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장애여성의 미용실태 조사와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2011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피부비만관리학 전공

김 수 진

장애여성의 미용실태 조사와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배 현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피부비만관리학 전공

김 수 진

인 준 서

김수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감사의 글

어느새 논문을 마치면서 그동안 저를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논문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바쁘신 가운데 저를 세심하게 지도해주시고 부족한 저를 언제나 너그럽게 이끌어 주시는 저의 지도 교수님이신 배현숙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의 주제부터 쉽지 않은 선택을 결정하고 풀어내기 까지 좋은 조언자가 되 주시고, 격려해주신 것, 항상 웃어주시던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을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챙겨주시고, 열정으로 지도해주신 안홍석 교수님, 자상한 관심과 격려로 챙겨주시는 김명숙 교수님, 논문의 진행을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주시는 이승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학생들 지도를 위한 시간을 남겨두시는 모든 교수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까마득하기만 했던 학위 논문 결실이 그동안 힘들고, 지친 일들을 모두 잊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과 후회는 남지만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인내하며 같이 해준 사랑하는 신랑,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 주는 부모님과 오빠, 늘 이해와 믿음으로 지켜봐주시는 시댁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늘 옆에서 응원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작정 부탁했던 설문에 기꺼이 도와주신 박정아 센터장님, 이재희 팀장님, 이연정 복지사님 외에 협조해주신 복지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년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도와준 동기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 마음을 글로 다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 개요

신체장애와 사회적 소외라는 이중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여성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미를 추구하는 욕구충족이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수년간 사회의 제도적 보호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사회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의식 변화가 일고 있으나 사회 통합적인 복지증진이라는 틀 안에서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미용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여성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장애여성들의 여성성 회복과 긍정적 자기이미지 증폭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천적인 프로그램과 장애여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소재하고 있는 복지관중 임의표집 방법을 통해 23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2010년 8월 2일부터 2010년 9월 17일까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타당도 분석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미용의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장애등급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과 미용관리 실태와 미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 자기효능감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chi^2(p)$ 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한 결과에 대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 $p<.01$, $p<.001$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장애등급에 따른 일반적 특성 분석 결과 연령별로는 30-39세가 많았고, 학력별로는 고졸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48.7%였고, 직업별로는 전업주부가 높게 나타났다($p<.01$).

둘째,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 관심도는 장애가 심할수록 미용의 관심도가 높아 졌다($p<.05$). 미용의 중요도는 3-4급에서 인식의 정도가 높았고, 미용 관심의 이유는 장애가 심할수록 '외모를 가꾸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고, 장애가 낮을수록 자기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위해' 외모관리를 하고 있었다. 장애가 높은 등급에서 미용관심도가 낮은 여성들의 이유로는 '외모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와 '외모를 가꾸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느껴져서'가 비교적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셋째, 장애등급에 따라 경험한 외모관리 행동 중 헤어스타일 변화가 높게 나타났다.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헤어스타일 변화를, 낮은 등급에서는 피부 관리를 가장 선호했다. 월 외모관리 비용으로 '5만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미용관련 정보에 대한 습득 경로는 높은 등급에서는 대중매체가, 낮은 등급에서는 친구, 가족, 친지가 높게 나타났다($p<.01$).

넷째, 장애등급에 따른 피부, 헤어, 네일 및 메이크업관리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등급에 따른 피부 관리실 방문 여부는 73.0%로 '아니오'가 높았으며, 대부분이 경제적, 시간적 이유이며, 장애가 심할수록 '장애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방문을 안 한다'고 한다. 피부 관리실은 주로 장애가 낮은 5-6급에서 많이 이용하지만, '3개월에 1회' 정도였다. 자신의 이미지에 피부가 중요하다고 인식

하는 3-4급에서 피부 관리실을 다니는 사람에 한해 관리횟수가 '주 1회'로 다른 등급에 비해 자주 이용하는 편이었다. 이용 시기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이고, 모든 장애등급에서 주름 및 노화방지를 위해 방문하며, 필요성에 의해 피부 관리실을 찾게 된 계기로 뽑았다. 장애등급 1-2급에서는 적절한 관리비용을, 3~6급은 '집이나 직장과 가까운 곳'을 피부 관리실 선택 시 중요사항으로 꼽았다. 피부 문제로 인한 우울감은 장애가 낮은 경우 우울감은 거의 없지만 장애가 심한 등급에서는 우울감을 가끔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 .05$).

2) 헤어가 미용이미지에 미치는 중요도는 장애가 낮은 등급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모든 등급에서 두 달에 한번 헤어관리를 받는 경우가 높았고, 관리 방법으로는 커트가 68.1%로 높았다. 모든 장애등급에서 '집이나, 직장과 가까운 곳'이나 '미용사의 기술'을 중요사항으로 선택했으나, 장애가 낮은 등급에서만 '적절한 관리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했다($p < .05$).

3) 장애등급에 따른 네일 관련 미용이미지 중요도에 대한 결과는 장애가 심할수록 네일 색상과 모양이 미용이미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p < .01$).

4) 모든 장애등급에서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는 89.6%로 높았고, 장애가 낮은 등급에 비해 장애가 높은 등급에서 더 자주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p < .001$)).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주로 스킨, 로션, 에센스 정도의 기초화장과 낮은 등급에 비해 색조를 좀 더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메이크업의 목적으로는 장애가 심할수록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장애가 낮은 등급에서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경우가 높았다($p < .001$).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방법을 몰라서'이고, 낮은 등급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높았다($p < .05$).

다섯째, 전체 연구 대상자의 미용의 관심도와 중요도는 양의 상관성 ($r = .383$)

을 나타냈다($p < .01$). 이는 미용의 관심이 많을수록 미용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미용의 관심도는 $r = .324$ ($p < .01$), 미용의 중요도는 $r = .345$ ($p < .01$)로 정적인(+관계를 나타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미용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형태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피부의 경우 1-2급이 높게 나타났고, 헤어스타일의 경우 3-4급이, 네일의 경우 5-6급이, 메이크업의 경우 1-2급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관리 욕구성향에서 장애가 높은 등급일수록 낮은 등급에서 보다 사회적 요인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p < .01$). 전체 연구대상자의 미용관리 욕구성향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정적인(+관계를 보여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외모인식, 외모태도, 사회적 요인, 미용관리 행위, 외모 관심도, 전체 미용관리욕구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덟째,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장애등급이 '1-2급' >, '5-6급' >, '3-4급'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론적 측면에서 장애여성의 미용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장애여성의 현실을 조명하고,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장애여성의 미용 욕구 충족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사회적 기반 조성, 역량강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제도적 지원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II. 이론적 배경	6
1. 장애의 개념	6
2. 미용의 정의	7
3. 미(美)와 미용관리 욕구	9
4. 자기효능감	10
III. 연구 방법	12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12
2. 연구 내용 및 방법	13
요인분석	14
3. 자료의 처리 및 분석 방법	18
IV. 연구 결과	19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
2. 미용 인식 항목	21
1) 미용관심도	21
2)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관심의 이유	22

3)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관심도의 차이	24
4)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의 중요도 차이	25
3. 미용관리 형태	26
1) 장애등급에 따른 경험한 외모관리행동	26
2) 장애등급에 따른 이상적인 외모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행동	27
3) 장애등급에 따른 외모관리 비용 및 정보습득 경로	27
4. 미용현황 및 관리 성향	29
1) 피부 관리에 관한 항목	29
2) 헤어 관리에 관한 항목	34
3) 네일 관리에 관한 항목	37
4) 메이크업에 관한 항목	39
5) 미용 관심도, 중요도와 자기효능감	42
5. 미용형태 만족도	43
6. 미용관리 욕구	44
1)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관리 욕구성향	44
2) 미용관리 욕구성향과 자기효능감 상관관계	46
7. 장애등급에 따른 자기효능감	47
V. 고찰	48
VI. 결론 및 제언	55
참고 문헌	59
ABSTRACT	64
Appendix(설문지)	70

List of Tables

<표 목차>

Table 1. 설문지 구성	13
Table 2. 미용관리 욕구성향 요인분석	15
Table 3. 자기효능감 요인분석	16
Table 4. 미용관리 욕구 신뢰도 검증	17
Table 5. 일반적 특성	20
Table 6. 미용 관심도	22
Table 7.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에 관심의 이유	23
Table 8.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 관심도의 차이	24
Table 9.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의 중요도의 차이	25
Table 10. 장애등급에 따른 경험한 외모관리행동	26
Table 11. 장애등급에 따른 이상적인 외모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행동	27
Table 12. 장애등급에 따른 외모관리 비용 및 정보습득 경로	28
Table 13. 장애등급에 따른 본인 이미지에 대한 피부의 중요도	29
Table 14. 장애등급에 따른 피부 관리실 이용 실태(1)	31
장애등급에 따른 피부 관리실 이용 실태(2)	32
Table 15. 장애등급에 따른 피부 문제로 인한 우울감	33
Table 16. 장애등급에 따른 헤어가 미용이미지에 미치는 중요도	34
Table 17. 장애등급에 따른 헤어관리실 이용 실태	36
Table 18. 장애등급에 따른 네일 관련 미용이미지 중요도	38
Table 19. 장애등급에 따른 메이크업이 미용이미지에 미치는 중요도	39
Table 20. 장애등급에 따른 메이크업 유무	41

Table 21. 미용 관심도, 중요도와 자기효능감	42
Table 22.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형태의 만족도	43
Table 23.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관리 욕구성향	45
Table 24. 미용관리 욕구성향과 자기효능감 상관관계	46
Table 25. 장애등급에 따른 자기효능감	47

<그림 목차>

Figure 1. 미용의 관심도	22
Figure 2.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 관심도	24
Figure 3.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의 중요도	25
Figure 4. 장애등급에 따른 본인 이미지에 대한 피부의 중요도	29
Figure 5. 장애등급에 따른 헤어가 미용이미지에 미치는 중요도	34
Figure 6. 장애등급에 따른 메이크업이 미용이미지에 미치는 중요도	3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현대인들의 삶의 질에 관한 관심 고조와 함께 사람들의 삶의 영향을 주는 요소들도 변화하고 있다.(김창은, 2008) 자기계발 요소의 하나인 외적인 아름다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연스럽게 미용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이소정, 2008)하였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도 그 중요성은 비장애인들에게 있어서와 다를 바 없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던 것도 사실이다.(김창은, 2008)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을 제거함으로써(김기화, 2001)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그들의 욕구와 그 충족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관련 서비스가 확대되고 정책이 정비되고 있다.(김창은, 2008) 이러한 장애인 복지 분야의 변화 중심부에 있는 이슈가 바로 장애여성문제이다.(황령희, 2002)

장애인들은 주된 소외계층으로, 특히 장애라는 차이를 가진 여성이라는 장애여성들이 겪는 차별은 여성과 장애인 차별의 합인 형태인 이중차별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권명옥, 이상복, 2000: Erickson and Upsjur 1989) 더욱이 장애여성을 여성이 아닌 제 3의 무성적 존재로 보는 우리사회에서 장애여성들이 겪는 차별은 단순히 두 차별의 합이 아닌 또 다른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性, 美에 대한 욕구마저도 무시되어 왔다.(안종숙, 2007)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정신적인 긴장은 증가되며, 행동이 소극적, 퇴행적으로 되기 쉽다.(Hilton 1992: Ruth 1994)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약10%로,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장애여성의 비율이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Iarskaia Smirnova and Romanov 2006)

우리나라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등록 장애인 수는 2,137,226명으로, 이 중 남성장애인은 58.6% 여성장애인은 41.4%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사회연구원, 2008)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의 분포가 17.2% 낮게 조사되었으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고 노령기 장애가 증가하였다.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해 산업재해 증가 등 관련 장애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여성장애인의 발현율은 더 많을 수 있다고 보아(보건복지부, 2006) 중요한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여성장애인에 관한 기존의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실태파악이나 사회적 차별, 고용과 취업에 있어서의 방향, 만족도, 사회통합에 관한 요인 등 사회적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연구가 주된 반면,(황령희, 2002) 여성장애인의 여성성이나 미용적 측면에서 접근한 미용 실태에 대한 연구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미용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행동은 심미적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적 차원의 역할로도 연구 범위를 확대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안중숙, 2007)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인식은 여성장애인을 성적인 존재(sexual being)로 보지 않거나 그들의 장애를 두려워하고, 잘 알지 못하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며, 장애를 가진 여성을 장애를 가진 남성보다도 훨씬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는 삶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여 사회적 지지가 장애인의 삶에 주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송지원, 2005) 사회적 지지와 연관성이 높은(이경희, 2006)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신념을 뜻한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여성은 자아정체감과 형성 등과 같은 정서적 불안요인이 높고 무력감에 빠지기 쉬우며 문제인식과 상황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비해(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이

높은 여성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 더욱 분발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unk, 1981)

김단희, 임진형, 임유진의 연구에서와 같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변화가 이루어지고,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지에 의해서 향상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김단희, 2002; 임진형, 1999; 임유진, 2001)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름다움과 같은 외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면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서희숙과 송정아, 2004) 미용 또한 건강적, 정신적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인들에게 외모의 변화로 인해 자신감뿐만 아니라 심리적 만족감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화장을 하는 여성은 자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보다 활발한 대인행동을 하며, 이러한 활발한 대인행동이 여성에게 자신감이나 자기존중감을 부여하게 된다.(余語莫夫, 1995) 피부 관리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여성들은 비교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선령, 2004), 자기효능감에 있어 화장 근접도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기여, 1997) 또한 미용과 화장은 심리적 안정감(권현숙, 2001)과 자기효능감(조기여, 유태순 1997)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애인들은 사회차별, 사회활동의 참여 제한, 인적자원의 축소 등으로 고립감을 느끼기 쉬우며(Hanson and Hanline 1990) 이는 우울증과 연결되어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개선시키고, 자기효능감, 정신건강의 증진과 진정한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전용수, 2007)

이러한 적극적인 연구를 통하여 여성장애인들에게 미용행동을 통한 긍정적 자기 이미지와 자기효능감을 증폭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미적,

실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인 체제가 필요한 미용분야의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생각한다.(안종숙, 2007)

의학의 발달과 산업 구조의 변화로 그 수가 점차 줄어들어야 하지만,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는(윤석용, 2002) 장애인은 잠재적 소비자들로서 새로운 시장 개척에 있어 틈새시장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미용 산업에 있어 장애인들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의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돕는 장애인 복지측면(이현정, 2004) 뿐만 아니라 미용 계에서도 선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해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들의 장애등급에 따른 특성별로 미용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인식, 관심을 기울이는 행동에 대한 이유 분석과 그에 따른 미용관리 형태에 대해 알아보고, 여성장애인들의 미용욕구 분석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현대여성의 중요한 자기표현의 수단이자 건강의 하위 요인으로서의 ‘미용’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등급에 따른 특성별로 미용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인식, 관심을 기울이는 행동에 대한 이유 분석과 그에 따른 미용관리 형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들의 미용욕구 분석 및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장애여성의 여성성 회복과 더불어 긍정적 자기이미지 증폭의 기회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일조할 방법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두며, 장애여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들의 장애등급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 2) 장애여성들의 등급에 따른 미용의 관심도와 중요도에 대한 이유와 차이를 알아본다.
- 3) 시각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미용의 주요 요소인 미용관리 형태 및 미용관리 실태와 함께 만족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 4)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관리욕구와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고,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의 개념

국제연합(U.N.)의 "장애인 권리 선언"에는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의 결여로 인해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려고 할 때,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 한다.(김혜경 1999)

1991년 6월에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제 1장 2조에 의해 장애자라는 용어 대신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에 대한 정의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법)

한편, 장애는 15종류의 유형으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장애인, 장루, 요루장애인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제2조 관련]시행2010.7.12 대통령 제22269호) 그리고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1등급부터 6등급으로서 1급에 가까울수록 중증장애인이고, 6급에 가까울수록 경증장애인을 의미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 <개정 2008.3.3, 2010.3.19>)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장애를 심신의 손상(impairment), 장애(disability), 사회적 분리(handicap)로 보며, 심신의 손상과 장애는 기질적, 기능적 손상에 의한 직접적으로 초래되는 일상생활의 불편과 능력의 제한으로 1차적인 장애를 의미한다. 사회적 분리는 손상이나 기능제약에 따른 1차적 장애로 인

하여 주변 환경이나 사회로부터 받게 되는 불이익으로서 편견, 소외, 차별 등에 대한 2차적 장애이다.(정기원 등, 1995) 어떤 개인에게 장애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의 제약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장애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한이 되는 신체적, 정신적 조건으로 정의하는 Pope의 관점에는 장애의 사회적 측면이 잘 표현되어 있다.(Pope 1990)

2. 미용의 정의

미용분야는 헤어, 피부, 화장 등으로 나누어 발전해 왔으나 사회가 다변화하고 미용수요자들의 욕구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미용분야도 다양화 되고 있다.(김미녀, 최상복, 이정옥 2003)

미용의 정의를 살펴보면, 미용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질을 하고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라 공중위생법 제 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김홍규(1997)는 미용은 인간의 욕구 자체가 안전이나 의식주 문제에서 벗어나 가치 표현과 자아실현으로 옮겨가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정의를 살펴보면 미용관리는 개인의 자신감과 사회활동의 적극성을 증대한다. 미용은 개인의 정신적 특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심리적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곽형심, 1998)

인간의 건강상태와 정신적인 안정 상태를 표면의 어떠한 현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피부는 인체 내부의 여러 증상을 표현하는 거울이라 할 수 있고 정신적 상태, 생활습관의 반사경이라 할 수 있다.(김주리, 2007)

1) 피부

현대인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더욱 강해졌으며,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최근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피부미용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는 것에 있으며(윤소영, 2007), 건강상태와 정신적인 안정 상태를 포면의 어떠한 현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피부는 인체 내부의 여러 증상을 표현하는 거울이라 할 수 있고 정신적 상태, 생활습관의 반사경이라고 할 수 있다.(이소정, 2008)

2) 헤어

미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많은 변화가 오면서 차츰 다양한 경로를 통한 헤어스타일이 요구 되고 있다. 헤어스타일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문화이며, 특히 미용예술로서 모발 관리는 중요한 소재이다. 또한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아름다움을 연출(홍성임, 2007)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3) 네일

매니큐어란 보통 손톱을 아름답게 손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손톱에 색을 바르는 것만이 아니라 손톱의 모양을 다듬든지 손질을 하는 등, 손톱뿐 아니라 손 전체를 청결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황희순, 2002), ‘미술적 측면에서 바라본 의상과 헤어의 또 다른 분야’라 할 수 있다.(임유미, 2010)

4) 메이크업

메이크업은 단순히 얼굴 위주의 화장 개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내적 정신과 외적 정신까지도 재창조해

내는 전문분야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양진희, 2005)

시대의 흐름과 함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인 문화현상을 단적으로 잘 반영(윤소영, 2007) 해준다.

3. 미(美)와 미용관리 욕구

인간의 미는 사회적 이상과도 결부된다.(곰브리치, 1997) 미는 우리 마음속의 느낌의 표현이고 체험, 관찰, 분석, 이론적인 지식과는 다른 것이다. 각 개인의 주관적 느낌이 각자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활동은 사회를 통하여 형성 되고 사회적 성격, 사회적 의미, 사회적 규정들을 갖기 때문에 그 현상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조명해야 한다.(신명자, 2000)

인간의 아름다움은 흔히 외모로 표현되며, 사람들은 외모로써 상대를 이해하고 파악하고자 한다. 외모는 시대의 한 개인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시각적으로 보이는 미용, 의상, 장식 등을 활용한다. 자신을 꾸미는 행위는 자신의 이미지 관리나 사회생활 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 영역은 용모, 헤어스타일, 의상을 포함한 모든 분야이다.(홍혜은, 1999; 정지아, 1999)

여성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어야 하며, 여성에게 외모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개선하며 과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자원이며, 자신감 형성을 높일 수 있는 관계(Silverman 1945)라고 하였다.

미용관리는 단순한 외적인 치장뿐만 아니라 내적, 정신적인 자아의 회복을 위한 모색이라 볼 수 있으며, 미용관리 행위를 포함한 미용의 측면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향한 움직임으로 건강증진행위로서의 생활방식이다.(유수정, 2010)

“Kalick(1978)은 연령과 사회, 경제적 상태, 문화적 차이를 뛰어 넘는 공통적인 미의 기준이 존재 한다”(임숙자 외 3인 68고) 하였다. 최근 현대사회에서는 성 역할의 진보와 더불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역시 외모관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소비자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외모 관련 제품이 개발 되고 연구들이 다양해졌다.(윤소영, 2007) 외모관리 행동 유형도 다양해졌으며, 헤어스타일, 피부 관리, 체형관리, 화장, 네일, 페디큐어, 미용성형, 다이어트, 의복 및 소품 착용 등으로 구분된다.

4. 자기효능감

사회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서 파생된 개념인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 또는 신념을 말하며, 이는 현재 행동 및 미래의 행동수행에도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77)

Schunk(1981)도 자기효능감을 주어진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보았다. 이를 좀 더 구체화시켜 모호하고 예견할 수 없으며 긴장을 주는 요소가 포함된 구체적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나 행동을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하였다.

자기효능감을 자신감과 비교하여, 자신감은 수행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 또는 확신의 강도를 의미하지만, 자기효능감은 그 믿음의 강도와 인지된 능력 수준의 구체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김태현, 2006)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이 인간의 행동방식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 특성 취약점에 대한 신념을 발달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기효능감은 행동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능가하는 과제를 피하고자 하며, 자신 있는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행동의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없을수록 어려운 환경에서 쉽게 포기를 하며, 이와 반대로 특정 과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그 과제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그러한 행동을 지속하는 시간도 길어진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대처행동을 표현하는지, 혹은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인지 그리고 여러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특정 행동을 지속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데, 이러한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신념체제인 자기효능감인 것이다.(김태현, 2006)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 등 다양한 행동특성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의철, 박영신, 1999; 박영신, 곽금주, 1998) Bandura는 자기효능감이 우울증이나 기타 건강과 관계된 행동 특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김주현(1995)은 건강행위를 변화시키는데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유로 보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도 학업적 욕구와 대인관계를 처리하는 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은 불안이 높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증상을 경험 한다(Solberg, O'Brien, Villareal, & Davis, 1993)고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인천, 경기도 소재하는 장애인 복지관 중(편의 추출) 임의표집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복지관에 등록된 성인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에 응한 250명의 연구대상 중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23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8월 2일부터 2010년 9월 17일까지이며, 본 연구에 앞서 5명의 장애여성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문항분석과 신뢰도를 확보, 애매한 점이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표현들을 조사한 후 수정, 보완하여 최종문항을 결정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장애여성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신체적으로 불편한 이들은 오랜 시간동안 집중하여 설문지에 응답하는 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신체적, 정신적장애가 심하거나 시각장애로 인해 본인 스스로 응답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연구자가 직접 조사 대상자와 연구의 목적, 취지 및 응답요령을 설명한 후, 각 문항을 차례로 질문하고 응답자가 답하는 것을 연구자가 설문지에 기록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또한 청각장애인에겐 복지관 선생님의 수화를 통한 설명을 바탕으로 대상자가 직접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총 230명의 설문결과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김세한별(2006), 이소정(2008), 유수정(2009)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크게 6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1부는 장애등급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을, 2부는 미용인식에 관한 항목을, 3부는 미용관리 형태 및 미용 관리현황을, 4부에서는 미용형태 만족도를, 5부는 미용관리욕구 성향을, 6부에서는 자기효능감에 관한 문항이었다. 2~6부는 각 문항에 대해 Likert 척도법을 이용해 5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하였다. 연구를 위한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설문지 구성

조사항목	내 용	문 항 수
일반적 사항	연령, 키, 체중, 학력, 장애등급 장애유형, 결혼유무, 직업, 건강상태 가족의 경제수준, 일상생활의 도움정도	11
미용인식에 관한 항목	미용관심도, 중요도, 인지이유	3
미용관리 형태 및 미용관리현황	경험한 미용관리행동, 선호하는 미용관리행동 월평균 미용관리비용, 미용관리정보 습득경로 ----- 피부 관리-피부의 중요도와 관리 유무, 피부 관리를 안 하는 이유, 이용 횟수, 이용 시기 ----- 이용 이유, 계기, 관리실 선택의 시중요도 ----- 헤어관리- 헤어의 중요도와 방문횟수 ----- 관리방법, 미용실 선택의 중요도 ----- 네일 요소의 중요도(청결, 길이, 색상, 모양, 핸드 마사지) ----- 메이크업의 중요도, 메이크업 유무, 안하는 이유, 횟수, 메이크업 정도, 화장목적	13
미용형태 만족도	피부, 헤어, 네일, 메이크업	4
미용관리 욕구성향 태도/인식	외모인식	4
	외모태도	5
	사회적 요인	4
	미용관리행위	6
	외모관심도	4
자기효능감	미용관련 항목	11
계		80

요인분석

요인분석은(Factor analysis)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변수들을 동질요인으로 묶어 변수를 축소, 단순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널리 이용되는 요인분석 모델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or component analysis)과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이 있다. 최초의 정보를 최소한의 요인으로 압축하고자 할 때는 주성분분석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변수를 축소, 압축하여 의미 있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요인을 회전하는 방법에는 직각회전 방법(orthognanal rotation)을 이용하였는데, 직각회전은 회전시 요인들간의 독립성을 유지시킨다. 직각회전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각회전을 사용하였으며, 여러 방법 중에서 베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방법(채서일, 『마케팅 조사론』 (서울:학현사, 1997) 3판)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추출은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다. 각 변수의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적재량(Facor loading)의 수용기준은 보통 ± 0.30 이상이면 유의하다고 보지만 보수적인 기준은 ± 0.40 이상이다. 그리고 ± 0.50 이상인 경우는 매우 높은 유의성을 갖는다고 본다.(강병서, 행렬과 SPSS/PC 이용 다변량통계분석), (서울:학현사,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기준인 ± 0.40 이상을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각 요인이 전체 분산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고유치(Eigen Value)는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고유치 1 이상, 요인적재량 ± 0.40 이상을 기준으로 도출된 요인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각회전방법 중 베리맥스 회전방법을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분석표는 <Table 2>와 같고, 자기효능감 요인분석표는 <Table 3>과 같다.

Table 2. 미용관리 욕구성향 요인분석

구분	내용	1	2	3	4	5
외모 인식	1. 사람들은 대체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830	.218	.013	.077	.168
	2. 상대방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780	.101	.098	-.044	.070
	3. 나는 외모에 대하여 자주 생각한다.	.769	.259	.178	.095	.030
	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외모를 칭찬해 주는 것이 기쁘다.	.745	.106	.189	.123	-.001
	5. 나는 외모에 대하여 불만족하거나 자신이 없을 때 미용을 통해 가꾸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	.675	.153	.424	.071	.072
외모 태도	7. 나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 노력한다.	.310	.638	.428	-.087	.013
	9. 외출 전 준비하는 시간이 길다.	.337	.627	.400	-.055	-.156
	8. 나는 외모에 신경을 안 쓰고 나가면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인다.	.330	.607	.100	.290	-.089
	10. 외모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을 보면 사치라는 생각이 들어 거부감을 느낀다.	.227	.589	.155	.341	-.210
	6. 외출하기 전에 나의 모습이 괜찮은지 확인한다.	.466	.543	-.136	.289	.218
사회적 요인	11. 즐겁고 멋지게 살기 위해 피부와 몸매관리를 하는 여성을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194	.137	.728	-.015	.099
	13. 젊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유익하다.	.183	.179	.719	.202	-.052
	12. 좋은 피부를 갖는 것은 외모에 자신감이 생겨 이성에게 호감을 갖도록 한다.	.322	.131	.601	.068	.167
	14. 좋은 피부를 위해 꾸준히 관리를 하고 싶다.	.341	.410	.562	.118	-.181
미용 관리 행위	15. 나는 주름방지, 미백, 자외선 차단 등에 관련된 제품을 사용해 본적이 있다.	.212	.215	.215	.786	-.058
	17. 나는 외모관리에 필요한 용품에 관심이 많다.	.047	.120	.044	.778	-.029
	18. 나는 외모를 젊게 보이는 화장에 관심이 많다.	.145	.304	.065	.767	.035
	16. 좋은 머릿결을 유지하기 위해 두피, 모발관리를 받고 있다.	.356	.186	.183	.635	-.016
	19. 나는 외모를 가꾸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370	-.231	.338	.537	.167
외모 관심도	21. 외모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만나는 것이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다.	.043	.149	.144	.109	.814
	20. 외모에 관심이 없다.	-.084	-.006	-.035	.008	.829
	22. 나는 지금 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우면 좋겠다.	.163	.474	.195	.156	.564
	23. 나는 외모 중 바꿔야할 부분이 많다.	.214	.411	.291	.198	.556
고유 값		5.36	3.32	3.08	1.51	1.37
설명 분산		23.29	14.42	13.38	6.55	5.96
누적 분산		23.29	37.71	51.09	57.65	63.61

미용관리 욕구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1’ 외모인식은 고유 값이 5.36, 분산이 23.29%, ‘요인 2’ 외모태도는 고유 값이 3.32, 분산이 14.42%, ‘요인 3’ 사회적 요인은 고유 값이 3.08, 분산이 13.38%, ‘요인 4’ 미용관리행위는 고유 값이 1.51, 분산이 6.55%, ‘요인 5’ 외모 관심도는 고유 값이 5.96, 분산이 5.96%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요인 1~5의 전체 설명력은 63.61%로 미용관리 욕구에 대하여 잘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자기효능감 요인분석

내용	요인 1
7. 나는 피곤하고 힘이 들 때는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	.710
10. 나는 헤어스타일 연출을 내 이미지에 맞게 잘 할 수 있다.	.706
8. 나는 건강한 피부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을 식사를 통해 섭취할 수 있다.	.696
4. 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에 대한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	.694
6. 나는 마사지, 팩을 이용한 피부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	.667
1. 나는 미용과 관련된 것을 좋아하고 잘할 자신이 있다.	.644
3. 나는 밤에 푹 잘 수 있다.	.642
5. 나는 손톱, 발톱관리를 혼자 할 수 있다.	.639
9. 나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화장에 시간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637
11. 나는 미용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배운다면 실생활에 이용할 자신이 있다.	.629
2. 나는 피부 건강을 위하여 기호품(술, 담배, 커피)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473
고유 값	4.674
설명 분산	42.492
누적 분산	42.492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1 자기효능감은 고유 값이 4.674, 분산이 42.49%로 나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42.49%로 자기효능감에 대해 잘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용관리욕구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총 23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와 “전적으로 그렇다(5점)” 의 5점 likert 척도 범으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미용관리 욕구 신뢰도 검증

	Cronbach의 알파
외모 인식	.628
외모 태도	.795
사회적 요인	.610
미용관리행위	.855
외모관심도	.724
미용관리욕구전체	.920
자기효능감	.861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설문지의 각 항목에 대한 안정성,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신뢰도 계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 신뢰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이, 일반적으로 0.6 이상을 측정지표의 신뢰성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0.6 이상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평가하기로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미용관리욕구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외모 인식, 외모 태도, 사회적 요인, 미용관리행위, 외모 관심도 수준과 전체 미용관리욕구 수준, 자기효능감 수준에서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수준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3. 자료의 처리 및 분석방법

첫째,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타당도 분석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여 문항의 요인으로 묶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미용의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장애등급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과 미용관리 실태와 미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 자기효능감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chi^2(p)$ 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한 결과에 대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p < .01$, $p < .001$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연령별로는 '30-39세'가 26.5%, '40-49세'가 23.5%, '20-29세'가 20.0%, '50-59세'가 16.5%, '60세 이상'이 13.5%의 순이었다. 신장은 '150-159cm'가 54.3%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160-169cm'가 27.0%, '140-149cm'가 15.7%였다. 체중별로는 '51-60kg'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1-50kg'과 '61-70kg'이 24.8%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졸이 16.1%, 전문대졸이 10.4%, 대졸이 10.0%, 초등학교가 7.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학이나 대졸이상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등급별로는 '1-2급'이 43.1%, '3-4급'이 41.7%로 비슷하게 높고 '5-6급'이 15.2%로 나타났고,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뇌병변장애가 6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시각, 청각, 언어 장애가 17.8%, 정신지체, 발달, 정신질환 장애가 11.3%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결혼한 경우가 48.7%, 미혼이 37.8%, 독신(이혼, 별거, 사별)이 13.4%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가 34.8%, 무직이 29.1%,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이 20.0%의 순이었다.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48.3%, '좋다'가 24.8%였다.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48.3%, '100-199만원'이 27.0%, '200-299만원'이 19.1%의 순으로 경제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일상생활은 '대부분 혼자서 가능하다'가 5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모두 혼자서 가능하다'가 27.0%,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가 13.0%, '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가 4.3%로, 혼자서 가능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1-2급		3-4급		5-6급		전체		x ² (p)
		N	(%)	N	(%)	N	(%)	N	(%)	
연령	20-29세	22	22.2	23	24.0	1	2.9	46	20.0	30.676 ** (.000)
	30-39세	35	35.4	18	18.8	8	22.9	61	26.5	
	40-49세	25	25.3	20	20.8	9	25.7	54	23.5	
	50-59세	15	15.2	16	16.7	7	20.0	38	16.5	
	60세 이상	2	2.0	19	19.8	10	28.6	31	13.5	
키	140-149cm	20	20.2	13	13.5	3	8.6	36	15.7	4.597 (.596)
	150-159cm	51	51.5	55	57.3	19	54.3	125	54.3	
	160-169cm	26	26.3	24	25.0	12	34.3	62	27.0	
	170cm 이상	2	2.0	4	4.2	1	2.9	7	3.0	
체중	40kg 이하	6	6.1	3	3.1	1	2.9	10	4.3	12.035 (.150)
	41-50kg	31	31.3	21	21.9	5	14.3	57	24.8	
	51-60kg	41	41.4	38	39.6	15	42.9	94	40.9	
	61-70kg	17	17.2	30	31.3	10	28.6	57	24.8	
	70kg 이상	4	4.0	4	4.2	4	11.4	12	5.2	
학력	무학	2	2.0	5	5.2	1	2.9	8	3.5	30.555 ** (.002)
	초등학교	6	6.1	10	10.4	1	2.9	17	7.4	
	중졸	12	12.1	11	11.5	14	40.0	37	16.1	
	고졸	58	58.6	51	53.1	10	28.6	119	51.7	
	전문대졸	8	8.1	13	13.5	3	8.6	24	10.4	
	대졸	11	11.1	6	6.3	6	17.1	23	10.0	
	대졸이상	2	2.0	0	.0	0	.0	2	.09	
장애 유형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64	64.6	68	70.8	27	77.1	159	69.1	8.320 (.216)
	시각, 청각, 언어장애	19	19.2	14	14.6	8	22.9	41	17.8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질환	13	13.1	13	13.5	0	.0	26	11.3	
	심장장애, 신장장애	3	3.0	1	1.0	0	.0	4	1.7	
결혼 상태	기혼	46	46.5	42	43.8	24	68.6	112	48.7	15.440 ** (.004)
	미혼	45	45.5	38	39.6	4	11.4	87	37.8	
	독신(이혼, 별거, 사별)	8	8.1	16	16.7	7	20.0	31	13.5	
직업	무직	34	34.3	24	25.0	9	25.7	67	29.1	23.257 ** (.010)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파트타임)	11	11.1	30	31.3	5	14.3	46	20.0	
	정규직	5	5.1	1	1.0	3	8.6	9	3.9	

	학생	2	2.0	0	.0	1	2.9	3	1.3	
	전업주부	33	33.3	31	32.3	16	45.7	80	34.8	
	기타	14	14.1	10	10.4	1	2.9	25	10.9	
건강 상태	매우 좋다	13	13.1	9	9.4	2	5.7	24	10.4	4,253 (.834)
	좋다	25	25.3	25	26.0	7	20.0	57	24.8	
	보통이다	47	47.5	47	49.0	17	48.6	111	48.3	
	나쁘다	11	11.1	11	11.5	7	20.0	29	12.6	
	매우 나쁘다	3	3.0	4	4.2	2	5.7	9	3.9	
경제 수준	100만원 미만	50	50.5	46	47.9	15	42.9	111	48.3	2,948 (.938)
	100-199만원	24	24.2	26	27.1	12	34.3	62	27.0	
	200-299만원	19	19.2	18	18.8	7	20.0	44	19.1	
	300-399만원	3	3.0	4	4.2	0	.0	7	3.0	
	400만 원 이상	3	3.0	2	2.1	1	2.9	6	2.6	
다른 사람의 도움정도	모두 혼자서 가능하다	22	22.2	28	29.2	12	34.3	62	27.0	8,359 (.213)
	대부분 혼자서 가능하다	53	53.5	54	56.3	21	60.0	128	55.7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17	17.2	11	11.5	2	5.7	30	13.0	
	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7	7.1	3	3.1	0	.0	10	4.3	
	전체	99	100.0	96	100.0	35	100.0	230	100.0	

**p<.01

2. 미용인식 항목

1) 미용관심도

전체 연구 대상자의 미용의 관심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관심도가 높은 경우가 37.0%, 보통이 28.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매우 높은 경우가 15.2%, 매우 낮은 경우가 11.3%, 낮은 경우가 8.3%의 순으로 나타나 미용의 관심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 미용 관심도

구분	빈도	(%)
매우 낮다	26	11.3
낮다	19	8.3
보통이다	65	28.3
높다	85	37.0
매우 높다	35	15.2
합계	23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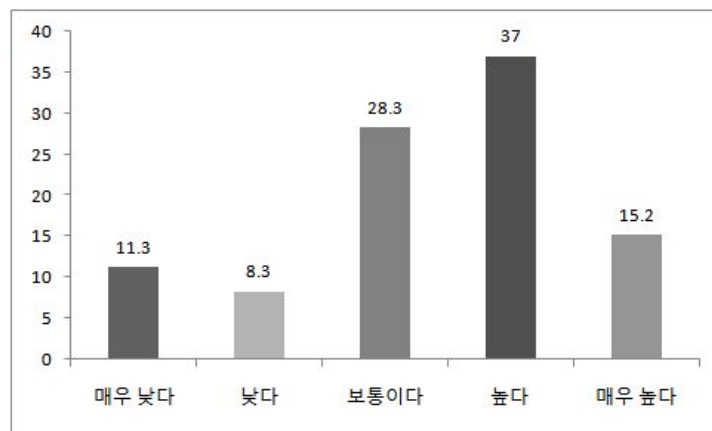


Figure 1. 미용의 관심도

2)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관심의 이유

연구 대상자의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 관심의 이유에 대한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에 관심이 낮은 이유를 살펴보면, 1-2급의 경우는 ‘외모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와 ‘외모를 가꾸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느껴져서’가 비교적 많은 편이고, 3-4급의 경우는 ‘외모 보다 다른 더 중

요한 것이 많아서'가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에 관심이 높은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외모를 가꾸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가 35.0%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2급, 3-4급 모두 '외모를 가꾸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가 각각 38.6%, 36.7%로 높게 나타났고, 5-6급의 경우에만 '심리적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가 35.7%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7.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에 관심의 이유

	집단								χ ² (p)	
	1-2급		3-4급		4-5급		전체			
	N	(%)	N	(%)	N	(%)	N	(%)		
미용에 관심이 낮은 이유	외모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5	23.8	4	16.0	2	16.7	11	19.0	12.366 (.417)
	외모 보다 다른 더 중요한 것이 많아서	1	4.8	7	28.0	2	16.7	10	17.2	
	외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다른 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2	9.5	3	12.0	2	16.7	7	12.1	
	외모를 가꾸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느껴져서	5	23.8	5	20.0	2	16.7	12	20.7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부담스러워서	3	14.3	1	4.0	2	16.7	6	10.3	
	방법을 몰라서	2	9.5	5	20.0	2	16.7	9	15.5	
	기타	3	14.3	0	.0	0	.0	3	5.2	
	전체	21	100	25	100	12	100	58	100	
미용에 관심이 높은 이유	심리적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8	14.0	9	18.4	5	35.7	22	18.3	11.630 (.476)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유리한 점이 많으므로	11	19.3	6	12.2	4	28.6	21	17.5	
	외모를 가꾸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22	38.6	18	36.7	2	14.3	42	35.0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4	7.0	6	12.2	0	.0	10	8.3	
	외모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본인이 가진 핸디캡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6	10.5	5	10.2	2	14.3	13	10.8	
	남들에게 보여지는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4	7.0	5	10.2	1	7.1	10	8.3	
	기타	2	3.5	0	.0	0	.0	2	1.7	
	전체	57	100	49	100	14	100	120	100	

3)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 관심도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 관심도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 관심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1-2급’, ‘3-4급’, ‘5-6급’의 순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가 심할수록 미용의 관심도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8.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 관심도의 차이

	M±SD	F	유의확률	Duncan
1-2급	3.54±1.137			
3-4급	3.34±1.122	3.371	.036	a>b>c
5-6급	2.94±1.349	*		
합계	3.37±1.177			

* $P<.05$

Duncan :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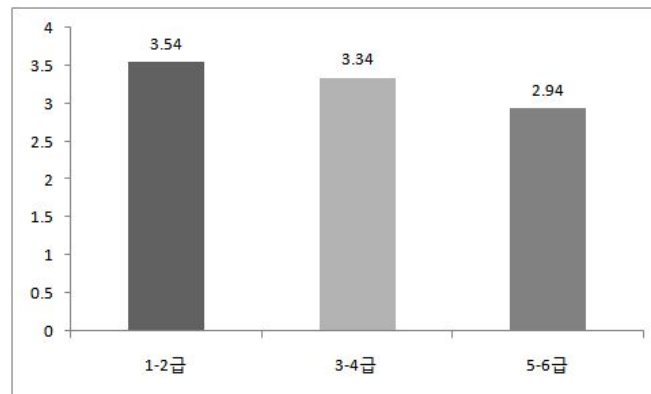


Figure 2.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 관심도

4)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의 중요도 차이

연구 대상자의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의 중요도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9>에 제시하였다.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의 중요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3-4급’이 높은 반면, ‘5-6급’이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9.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의 중요도의 차이

	M±SD	F	유의확률
1 - 2급	3.63±1.121	2.878	.058
3 - 4급	3.81±1.009		
5 - 6급	3.31±1.051		
합 계	3.66±1.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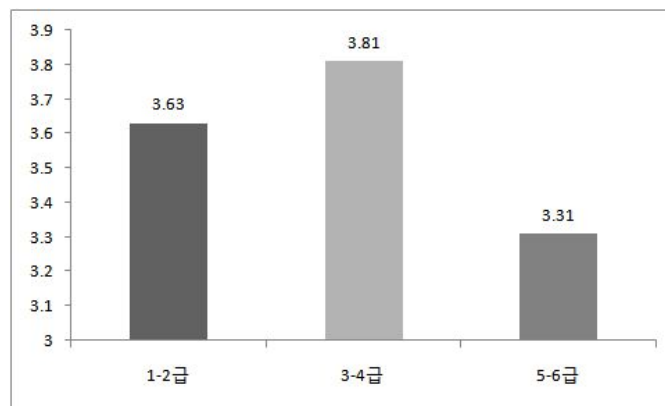


Figure 3.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의 중요도

3. 미용관리 형태

1) 장애등급에 따른 경험한 외모관리행동

연구 대상자의 장애등급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결과는 <Table 10>에 제시하였다.

장애등급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헤어스타일 변화가 43.5%로 높게 나타났고, 모든 장애등급에서 헤어스타일 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0. 장애등급에 따른 경험한 외모관리행동

	집단								$\chi^2(p)$
	1-2급		3-4급		4-5급		전체		
	N	(%)	N	(%)	N	(%)	N	(%)	
헤어스타일 변화	38	38.4	48	50.0	14	40.	100	43.5	18.370 (.303)
모발, 두피관리	18	18.2	9	9.4	3	8.6	30	13.0	
피부 관리(얼굴)	20	20.2	16	16.7	10	28.6	46	20.0	
경락, 전신관리	2	2.0	0	.0	0	.0	2	.9	
발마사지, 손 마사지	3	3.0	7	7.3	1	2.9	11	4.8	
네일, 페디큐어	7	7.1	4	4.2	2	5.7	13	5.7	
화장	6	6.1	9	9.4	3	8.6	18	7.8	
미용성형(문신, 퍼머넌트, 성형)	2	2.0	3	3.1	2	5.7	7	3.0	
기타	3	3.0	0	.0	0	.0	3	1.3	
전체	99	100	96	100	35	100	230	100	

2) 장애등급에 따른 이상적인 외모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행동

연구 대상자의 장애등급에 따른 선호하는 외모관리 행동에 대한 결과는 <Table 11>에 제시하였다.

장애등급에 따른 선호하는 외모관리 행동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헤어스타일이 41.7%, 피부 관리가 32.2%, 화장이 24.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1-2급과 3-4급은 헤어스타일이 높은 반면에 5-6급은 피부 관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1. 장애등급에 따른 이상적인 외모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행동

	집단								$\chi^2(p)$
	1-2급		3-4급		4-5급		전체		
	N	(%)	N	(%)	N	(%)	N	(%)	
헤어스타일 변화	42	42.4	43	44.8	11	31.4	96	41.7	
피부 관리	34	34.3	23	24.0	17	48.6	74	32.2	
화장	22	22.2	28	29.2	6	17.1	56	24.3	10.889
네일	1	1.0	1	1.0	0	.0	2	.9	(.208)
발마사지	0	.0	1	1.0	1	2.9	2	.9	
전체	99	100	96	100	35	100	230	100	

3) 장애등급에 따른 외모관리 비용 및 정보습득 경로

연구 대상자의 장애등급에 따른 월 외모관리 비용에 대한 결과는 <Table 12>에 제시하였다.

장애등급에 따른 월 외모관리비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3만원 미만'이 35.7%, '1만원 미만'이 26.5%, '3-5만원 미만'이 23.0%의 순으로 나타나 '5만원 미만'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등급에서 '1-3만원

미만'이 가장 높고 '5만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 관련 정보에 대한 습득(입수) 경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정보를 습득 경로가 없는 경우가 13.0%, 있는 경우는 대중매체가 27.0%, 친구, 가족, 친지가 22.6%,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이 20.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2급'의 경우는 대중매체가 30.3%,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이 24.2%의 순으로 높고, '3-4급'의 경우는 대중매체가 29.2%, 친구, 가족, 친지가 21.9%의 순으로 높고, '5-6급'의 경우는 친구, 가족, 친지가 34.3%로 높게 나타나 유의수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등급이 '1-2급'인 경우에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으로 미용관련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 반면, 등급이 '5-6급'인 경우에는 주위 친구, 가족, 친지에게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2. 장애등급에 따른 외모관리 비용 및 정보습득 경로

항목	구분	1-2급		3-4급		5-6급		전체		χ^2 (p)
		N	(%)	N	(%)	N	(%)	N	(%)	
외모관리 비용	1만원 미만	22	22.2	29	30.2	10	28.6	61	26.5	8.133 (.616)
	1-3만원 미만	37	37.4	33	34.4	12	34.3	82	35.7	
	3-5만원 미만	22	22.2	21	21.9	10	28.6	53	23.0	
	5-10만원 미만	11	11.0	7	7.3	2	5.7	20	8.7	
	10-20만원 미만	7	7.1	5	5.2	0	.0	12	5.2	
	20만 원 이상	0	.0	1	1.0	1	2.9	2	.9	
정보습득 경로	없음	9	9.1	16	16.7	5	14.3	30	13.0	30.042 ** (.0080)
	대중매체	30	30.3	28	29.2	4	11.4	62	27.0	
	인터넷 등 컴퓨터통신	24	24.2	17	17.7	7	20.0	48	20.9	
	친구, 가족, 친지	19	19.2	21	21.9	12	34.3	52	22.6	
	전문서적	2	2.0	2	2.1	0	.0	4	1.7	
	강의, 미용관리업소	1	1.0	9	9.4	3	8.6	13	5.7	
	복지센터나 협회	14	14.0	1	1.0	3	8.6	18	7.8	
	기타	0	.0	2	2.1	1	2.9	3	1.3	
전체	99	100.0	96	100.0	35	100.0	230	100.0		

** $p < .01$

4. 미용현황 및 관리 성향

1) 피부 관리에 관한 항목

연구 대상자의 장애등급에 따른 본인 이미지에 대한 피부의 중요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13>에 제시하였다.

장애등급에 따른 본인 이미지에 대한 피부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3-4급이 3.97로 높게 나타났다. 1-2급이 3.88, 5-6급이 3.82의 순으로 모든 장애등급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3. 장애등급에 따른 본인 이미지에 대한 피부의 중요도

	M±SD	F	유의확률
1-2급	3.88±.760		
3-4급	3.97±.814	.512	.600
5-6급	3.82±.968		
합계	3.91±.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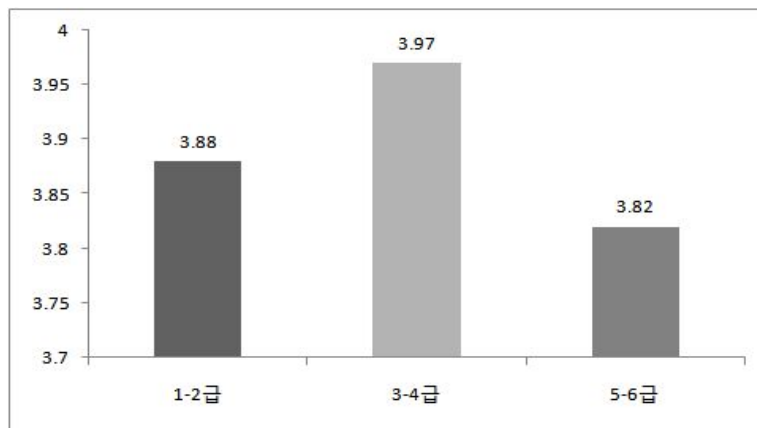


Figure 4. 장애등급에 따른 본인 이미지에 대한 피부의 중요도

연구 대상자의 장애등급에 따른 피부 관리실 방문 유무에 대한 결과는 <Table 14>에 제시하였다. 장애등급에 따른 피부 관리실 방문 유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아니오가 73.0%로 높게 나타났고, 모든 등급에서 ‘아니오’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등급에 따른 피부 관리실 이용횟수를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고, 모든 등급에서 기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1-2급의 경우는 ‘1개월에 1회’ 정도가 21.7%, 3-4급의 경우는 ‘주 1회’가 25.0%, 5-6급의 경우는 ‘3개월에 1회’ 정도가 27.3%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등급에 따른 피부 관리실 이용 시기를 살펴보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가 35.5%로 높게 나타났고, 모든 등급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등급에 따른 피부 관리 이용 이유를 살펴보면, 주름 및 노화방지가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모든 장애등급에서 주름 및 노화방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등급에 따른 피부 관리실을 찾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살펴보면, ‘필요성을 느껴서’가 58.1%로 높게 나타났고, 모든 장애등급에서 ‘필요성을 느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등급에 따른 피부 관리실 선택 시 중요사항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집이나, 직장과 가까운 곳’이 29.0%, ‘적절한 관리비용’이 22.6%의 순으로 나타났고, 1-2급은 ‘적절한 관리비용’이 가장 높은 반면에 3-4급과 5-6급은 ‘집이나, 직장과 가까운 곳’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등급에 따른 피부 관리실 방문을 안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시간적 이유가 44.6%로 높게 나타났고, 모든 등급에서 경제적, 시간적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장애로 인한 불편함’의 경우 1-2급이

23.7%, 3-4급이 14.7%, 5-6급이 0%의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등급이 1-2급의 경우가 장애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피부 관리실 방문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4. 장애등급에 따른 피부 관리실 이용 실태(1)

항목	구분	1-2급		3-4급		5-6급		전체		x2 (p)
		N	%	N	%	N	%	N	%	
방문유무	예	23	23.2	28	29.2	11	31.4	62	27.0	1.291 (.524)
	아니오	76	76.8	68	70.8	24	68.6	168	73.0	
	전체	99	100.0	96	100.0	35	100.0	230	100.0	
방문을 안 하는 이유	경제적, 시간적 이유	37	48.7	23	33.8	15	62.5	75	44.6	45.685*** (.000)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1	1.3	17	25.0	2	8.3	20	11.9	
	장애로 인한 불편함	18	23.7	10	14.7	0	.0	28	16.7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4	5.3	4	5.9	1	4.2	9	5.4	
	장애로 인한 차별대우와 불친절	2	2.6	3	4.4	0	.0	5	3.0	
	본인의 장애비관으로	0	.0	0	.0	2	8.3	2	1.2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5	6.6	5	7.4	3	12.5	13	7.7	
	혼자 이용하기 힘들어서	3	3.9	0	.0	0	.0	3	1.8	
	기타	6	7.9	6	8.8	1	4.2	13	7.7	
전체	76	100.0	68	100.0	24	100.0	168	100.0		
이용 횟수	주 1회	3	13.0	7	25.0	2	18.2	12	19.4	4.787 (.780)
	2주 1회	2	8.7	4	14.3	1	9.1	7	11.3	
	1개월에 1회	5	21.7	4	14.3	1	9.1	10	16.1	
	3개월에 1회	2	8.7	4	14.3	3	27.3	9	14.5	
	기타	11	47.8	9	32.1	4	36.4	24	38.7	
	전체	23	100.0	28	100.0	11	100.0	62	100.0	
이용 시기	규칙적인 관리를 위해	2	8.7	2	7.1	2	18.2	6	9.7	3.533 (.966)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	4	17.4	7	25.0	2	18.2	13	21.0	
	쉬고 싶을 때	3	13.0	6	21.4	1	9.1	10	16.1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9	39.1	9	32.1	4	36.4	22	35.5	
	몸이 불편할 때	1	4.3	1	3.6	0	.0	2	3.2	
	기타	4	17.4	3	10.7	2	18.2	9	14.5	
전체	23	100.0	28	100.0	11	100.0	62	100.0		

***p<.001

Table 14. 장애등급에 따른 피부 관리실 이용 실태(2)

항목	구분	1-2급		3-4급		5-6급		전체		χ ² (p)
		N	%	N	%	N	%	N	%	
이용이유	피부문제해결	3	13.0	5	17.9	3	27.3	11	17.7	12.207 (.429)
	주름 및 노화방지	5	21.7	11	39.3	6	54.5	22	35.5	
	건강유지	4	17.4	4	14.3	0	.0	8	12.9	
	휴식	2	8.7	2	7.1	0	.0	4	6.5	
	자기만족	6	26.1	3	10.7	0	.0	9	14.5	
	전신관리	0	.0	1	3.6	0	.0	1	1.6	
	기타	3	13.0	2	7.1	2	18.2	7	11.3	
	전체	23	100.0	28	100.0	11	100.0	62	100.0	
계기	필요성을 느껴서	15	65.2	14	50.0	7	63.6	36	58.1	6.249 (.396)
	배우자 및 이성으로부터 편견 혹은 권유	0	.0	4	14.3	0	.0	4	6.5	
	건강상의 문제로	3	13.0	5	17.9	1	9.1	9	14.5	
	주변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5	21.7	5	17.9	3	27.3	13	21.0	
	전체	23	100.0	28	100.0	11	100.0	62	100.0	
선택 시 중요도	집이나, 직장과 가까운 곳	4	17.4	10	35.7	4	36.4	18	29.0	7.159 (.710)
	교통이 편리한 곳	3	13.0	4	14.3	0	.0	7	11.3	
	적절한 관리비용	5	21.7	6	21.4	3	27.3	14	22.6	
	서비스 및 친절도	3	13.0	3	10.7	2	18.2	8	12.9	
	관리실의 시설 및 환경	2	8.7	3	10.7	1	9.1	6	9.7	
	관리사의 피부 관리 능력	6	26.1	2	7.1	1	9.1	9	14.5	
	전체	23	100.0	28	100.0	11	100.0	62	100.0	

***p<.001

연구 대상자의 장애등급에 따른 피부 문제로 인한 우울감에 대한 결과는 <Table 15>에 제시하였다.

장애등급에 따른 피부 문제로 인한 우울감을 살펴보면, ‘우울한 적이 없다’가 57.0%, ‘가끔 우울했다’가 36.5%로 높게 나타나 우울감이 낮은 것을 알 수 있고, ‘우울한 적이 없다’의 경우 5-6급이 74.3%, 3-4급이 56.3%, 1-2급이 51.5%의 순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가 적은 5-6급의 경우가 피부 문제로 인한 우울감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장애가 심한 1-2급의 경우가 우울감을 가끔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5. 장애등급에 따른 피부 문제로 인한 우울감

	집단								$\chi^2(p)$
	1-2급		3-4급		5-6급		전체		
	N	%	N	%	N	%	N	%	
우울한 적이 없다	51	51.5	54	56.3	26	74.3	131	57.0	13.825 * (.032)
가끔 우울했다	44	44.4	32	33.3	8	22.9	84	36.5	
대체로 우울했다	0	.0	6	6.3	1	2.9	7	3.0	
우울 정도가 심하다	4	4.0	4	4.2	0	.0	8	3.5	
전체	99	100.0	96	100.0	35	100.0	230	100.0	

*p<.05

2) 헤어 관리에 관한 항목

연구 대상자의 장애등급에 따른 헤어가 미용이미지에 미치는 중요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16>에 제시하였다.

장애등급에 따른 헤어가 미용이미지에 미치는 중요도를 살펴보면, 5-6급이 4.09로 1-2급 3.92, 3-4급 3.93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6. 장애등급에 따른 헤어가 미용이미지에 미치는 중요도

	M±SD	F	유의확률
1-2급	3.92±.853		
3-4급	3.93±.824	.619	.540
5-6급	4.09±.507		
합계	3.95±.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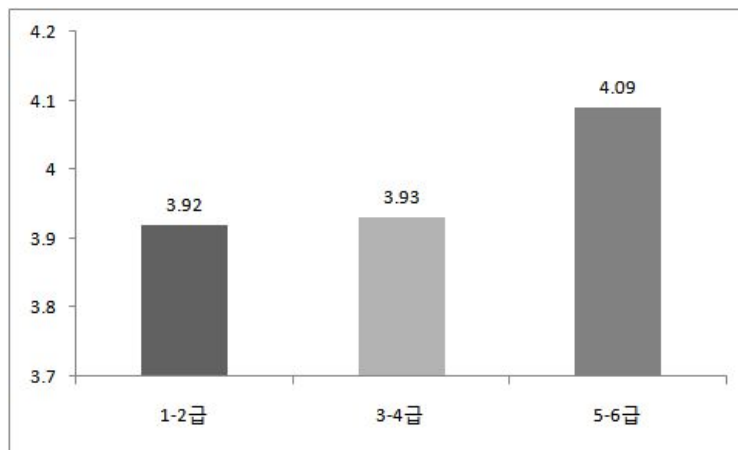


Figure 5. 장애등급에 따른 헤어가 미용이미지에 미치는 중요도

연구 대상자의 장애등급에 따른 헤어관리실 이용실태에 대한 결과는 <Table 17>에 제시하였다.

장애등급에 따른 헤어 관리 횟수를 살펴보면, ‘두 달에 한번’이 50.0%로 높게 나타났고, 모든 등급에서 ‘두 달에 한번’ 헤어 관리를 받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등급에 따른 헤어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커트가 68.1%로 높게 나타났고, 모든 등급에서 커트가 가장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실 선택 시 중요사항을 살펴보면, ‘집이나, 직장과 가까운 곳’이 35.7%, ‘미용사의 기술’이 27.2%로 높게 나타났고, 모든 장애등급에서 ‘집이나, 직장과 가까운 곳’과 ‘미용사의 기술’이 높게 나타났고, ‘적절한 관리비용’의 경우 5-6급이 25.7%, 3-4급이 21.9%, 1-2급이 11.8%의 순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5-6급의 경우가 다른 등급에 비해 미용실 선택 시 적절한 관리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7. 장애등급에 따른 헤어관리실 이용 실태

항목	구분	1-2급		3-4급		5-6급		전체		χ^2 (p)
		N	(%)	N	(%)	N	(%)	N	(%)	
관리횟수	한 달에 한번 이상	15	15.2	20	20.8	10	28.6	45	19.6	4.244 (.834)
	두 달에 한번	54	54.5	46	47.9	15	42.9	115	50.0	
	6개월에 한번	18	18.2	18	18.8	6	17.1	42	18.3	
	1년에 한번	6	6.1	6	6.3	3	8.6	15	6.5	
	기타	6	6.1	6	6.3	1	2.9	13	5.7	
	-----	전체	99	100.0	96	100.0	35	100.0	230	
관리방법	퍼머넌트(파마)	6	6.1	5	5.2	7	20.0	18	7.8	14.901 (.247)
	커트	67	67.7	68	70.8	21	60.0	156	67.8	
	염색	18	18.2	16	16.7	6	17.1	40	17.4	
	코팅, 헤어매니큐어	3	3.0	6	6.3	0	.0	9	3.9	
	모발관리	1	1.0	0	.0	0	.0	1	.4	
	드라이	1	1.0	0	.0	0	.0	1	.4	
	기타	3	3.0	1	1.0	1	2.9	5	2.2	
	-----	전체	99	100.0	96	100.0	35	100.0	230	
선택 시 중요사항	집이나, 직장과 가까운 곳	35	35.4	36	37.5	15	42.9	86	37.4	21.889 * (.016)
	교통이 편리한 곳	9	9.1	14	14.6	0	.0	23	10.0	
	적절한 관리비용	11	11.1	21	21.9	9	25.7	41	17.8	
	서비스 및 친절도	8	8.1	1	1.0	1	2.9	10	4.3	
	시설 및 환경	7	7.1	2	2.1	0	.0	9	3.9	
	미용사의 기술	29	29.3	22	22.9	10	28.6	61	26.5	
	-----	전체	99	100.0	96	100.0	35	100.0	230	

*p<.05

3) 네일 관리에 관한 항목

연구 대상자의 장애등급에 따른 네일 관련 미용이미지 중요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18>에 제시하였다.

장애등급에 따른 네일 관련 미용이미지 중요도를 살펴보면, 네일 청결의 경우는 1-2급>, 3-4급>, 5-6급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핸드 마사지’는 1-2급>, 3-4급>, 5-6급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네일 색상’의 경우 3-4급>, 1-2급> 5-6급 순으로 나타났다.($p<.05$) ‘네일 모양’의 경우 3-4급>, 1-2급> 5-6급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p<.01$) 1-4급이 5-6급보다 네일 색상과 모양이 미용이미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8. 장애등급에 따른 네일 관련 미용이미지 중요도

항목	구분	M±SD	F	유의확률	Duncan
네일 청결	1-2급	4.47±.867	.114	.892	-
	3-4급	4.22±.913			
	5-6급	4.20±1.106			
	합계	4.24±.922			
네일 길이	1-2급	3.77±.902	.147	.863	-
	3-4급	3.70±.840			
	5-6급	3.77±1.114			
	합계	3.74±.909			
네일 색상	1-2급	3.07±1.090	3.110 *	.047	a>b>c
	3-4급	3.18±1.136			
	5-6급	2.63±1.190			
	합계	3.05±1.135			
네일 모양	1-2급	3.14±1.020	5.021 **	.007	a>b>c
	3-4급	3.17±1.054			
	5-6급	2.54±1.146			
	합계	3.06±1.073			
핸드마사지	1-2급	3.34±.949	.719	.489	-
	3-4급	3.31±1.016			
	5-6급	3.11±.993			
	합계	3.29±.983			

*p,.05, **p<.01

4) 메이크업에 관한 항목

연구 대상자의 장애등급에 따른 메이크업이 미용이미지에 미치는 중요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19>에 제시하였다.

장애등급에 따른 메이크업이 미용이미지에 미치는 중요도를 살펴보면, 5-6급>, 1-2급>, 3-4급의 순이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9. 장애등급에 따른 메이크업이 미용이미지에 미치는 중요도

	M±SD	F	유의확률
1-2급	3.80±.908	.190	.827
3-4급	3.75±1.000		
5-6급	3.86±.772		
합계	3.79±.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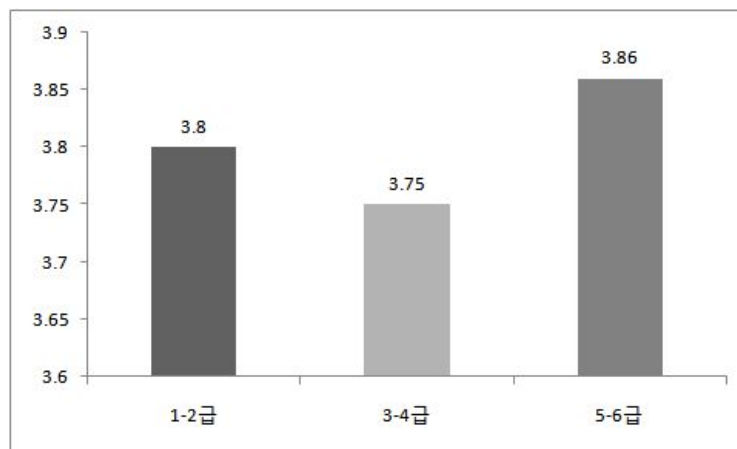


Figure 6. 장애등급에 따른 메이크업이 미용이미지에 미치는 중요도

연구 대상자의 장애등급에 따른 메이크업 유무에 대한 결과는 <Table 20>에 제시하였다.

장애등급에 따른 메이크업 유무를 살펴보면,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가 89.6%로 높게 나타났고, 모든 등급에서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등급에 따른 메이크업을 안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적 이유’와 ‘방법을 몰라서’가 각 29.2%,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16.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1-2급의 경우는 ‘경제적 이유가’가 40.0%, 3-4급의 경우는 ‘방법을 몰라서’가 60.0%, 5-6급의 경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p<.05$).

장애등급에 따른 메이크업하는 횟수를 살펴보면, ‘주1회 이하’의 경우 5-6급이 35.5%, 3-4급이 20.9%, 1-2급이 18.0%의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이러한 결과는 장애가 낮은 등급에 비해 장애가 높은 등급에서 더 자주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등급에 따른 메이크업 정도를 살펴보면, 스킨, 로션, 에센스가 25.2%로 높게 나타났고, 1-2급, 3-4급의 경우는 스킨, 로션, 에센스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5-6급은 투원케익(파우더)이 25.8%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등급에 따른 메이크업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가 25.7%,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23.3%로 높게 나타났고,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의 경우는 1-2급이 22.5%, 3-4급이 38.4%로 높은 반면에 5-6급은 0%로 낮게 나타났다. ‘기분전환을 위해서’의 경우는 1-2급이 9.0%, 3-4급이 11.6%로 5-6급 22.6%보다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이러한 결과는 메이크업의 목적으로 1-4급이 5-6급보다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화장을 하는 경우가 높은 반면에 5-6급은 1-4급보다 ‘기분전환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0. 장애등급에 따른 메이크업 유무

항목	구분	1-2급		3-4급		5-6급		전체		χ^2 (p)		
		N	(%)	N	(%)	N	(%)	N	(%)			
화장 유무	예	89	89.9	86	89.6	31	88.6	206	89.6	.049 (.976)		
	아니오	10	10.1	10	10.4	4	11.4	24	10.4			
전 체		99	100.0	96	100.0	35	100.0	230	100.0			
화장을 안 하는 이유 (다중응답)	경제적 이유	4	40.0	3	30.0	0	.0	7	29.2	21.657 * (.042)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	20.0	0	.0	2	50.0	4	16.7			
	시간이 없어서	0	.0	1	10.0	0	.0	1	4.2			
	방법을 몰라서	1	10.0	6	60.0	0	.0	7	29.2			
	화장품을 혼자서 구입하기 힘들어서(장애가 이유)	1	10.0	0	.0	0	.0	1	4.2			
	장애로 인해 혼자 화장하기 힘들어서	0	.0	0	.0	1	25.0	1	4.2			
	기 타	2	20.0	0	.0	1	25.0	3	12.5			
	전 체	10	100.0	10	100.0	4	100.0	24	100.0			
	횟수	주 1회 이하	16	18.0	18	20.9	11	35.5	45		21.8	21.687 ** (.001)
		주 2-3회	35	39.3	14	16.3	6	19.4	55		26.7	
주 4-5회		18	20.2	20	23.3	10	32.3	48	23.3			
6회 이상		20	22.5	34	39.5	4	12.9	58	28.2			
전 체		89	100.0	86	100.0	31	100.0	206	100.0			
화장하는 정도	스킨, 로션, 에센스	23	25.8	23	26.7	6	19.4	52	25.2	19.679 (.235)		
	메이크업베이스	0	.0	3	3.5	3	9.7	6	2.9			
	화운데이션 또는 B.B크림	22	24.7	14	16.3	5	16.1	41	19.9			
	트윈케익(파우더)	11	12.4	17	19.8	8	25.8	36	17.5			
	눈썹화장	12	13.5	6	7.0	2	6.5	20	9.7			
	입술화장	18	20.2	16	18.6	6	19.4	40	19.4			
	아이섀도	0	.0	2	2.3	0	.0	2	1.0			
	마스카라	1	1.1	2	2.3	1	3.2	4	1.9			
	볼 화장	2	2.2	3	3.5	0	.0	5	2.4			
전 체	89	100.0	86	100.0	31	100.0	206	100.0				
화장하는 목적	맨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11	12.4	5	5.8	6	19.4	22	10.7	33.023 ** (.001)		
	결점을 커버하고자	10	11.2	9	10.5	4	12.9	23	11.2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20	22.5	33	38.4	0	.0	53	25.7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22	24.7	15	17.4	11	35.5	48	23.3			
	기분전환을 위해서	8	9.0	10	11.6	7	22.6	25	12.1			
	화장으로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서	5	5.6	0	.0	2	6.5	7	3.4			
	기 타	13	14.6	14	16.3	1	3.2	28	13.6			
전 체	89	100.0	86	100.0	31	100.0	206	100.0				

***P<.001

5) 미용 관심도, 중요도와 자기효능감

연구 대상자의 미용의 관심도, 중요도와 자기효능감에 대한 결과는 <Table 21>에 제시하였다.

미용의 관심도와 미용 중요도는 $r=.383(p<.01)$ 로 정적인(+) 관계를 보여 미용의 관심이 많을수록 미용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미용의 관심도 $r=.324(p<.01)$, 미용의 중요도는 $r=.345(p<.01)$ 로 정적인(+)관계를 나타내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미용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1. 미용 관심도, 중요도와 자기효능감

	미용관심도	미용중요도	자기효능감
미용 관심도	1		
미용 중요도	.383(**)	1	
자기효능감	.324(**)	.345(**)	1

**p<.01

5. 미용형태 만족도

연구 대상자의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형태의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22>에 제시하였다.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형태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피부의 경우는 1-2급>, 3-4급>, 5-6급으로 나타났다. 헤어스타일의 경우는 3-4급>, 5-6급>, 1-2급 순이었다. 네일의 경우는 5-6급>, 1-2급>, 3-4급의 순으로 나타났고, 화장의 경우는 1-2급>, 3-4급> 5-6급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부, 헤어스타일, 네일, 화장의 모든 미용형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2.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형태의 만족도

항목	구분	M±SD	F	유의확률
피부	1-2급	3.06±.871	1.279	.280
	3-4급	3.02±.995		
	5-6급	2.77±.942		
	합계	3.00±.937		
헤어스타일	1-2급	3.10±.839	.222	.801
	3-4급	3.18±.911		
	5-6급	3.17±.747		
	합계	3.14±.854		
네일	1-2급	3.16±.846	.515	.598
	3-4급	3.08±.794		
	5-6급	3.24±.654		
	합계	3.14±.797		
화장	1-2급	3.18±.842	.242	.786
	3-4급	3.11±.893		
	5-6급	3.11±.471		
	합계	3.14±.817		

6. 미용관리 욕구

1)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관리 욕구성향

연구 대상자의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관리 욕구성향에 대한 결과는 <Table 23>에 제시하였다.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관리 욕구성향을 살펴보면, 전체 미용관리 욕구성향에서는 1-2급이 3.58, 3-4급이 3.52로 5-6급 3.37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미용관리 욕구성향 중 외모인식, 외모태도, 미용관리행위, 외모관심도의 경우 모든 장애등급에서 평균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고, 사회적 요인의 경우는 3-4급>, 1-2급>, 5-6급으로 나타났다.($p<.01$) 이러한 결과는 미용관리 욕구성향 중 사회적 요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4급이 5-6급보다 사회적 요인에 대해 더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경우는 3-4급>, 5-6급>, 1-2급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3.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관리 욕구성향

항목	구분	M±SD	F	유의확률	Duncan
외모인식	1-2급	3.75±3.69	.445	.642	-
	3-4급	3.64±3.71			
	5-6급	.563±.688			
	합계	.619±.625			
외모태도	1-2급	3.49±3.37	1.286	.278	-
	3-4급	3.28±3.41			
	5-6급	.657±.855			
	합계	.622±.742			
사회적 요인	1-2급	3.59±3.47	4.843 **	.009	a,b>c
	3-4급	3.26±3.49			
	5-6급	.705±.863			
	합계	.752±.785			
미용관리 행위	1-2급	3.59±3.47	2.323	.100	-
	3-4급	3.26±3.49			
	5-6급	.705±.863			
	합계	.752±.785			
외모관심도	1-2급	3.45±3.43	.064	.938	-
	3-4급	3.40±3.43			
	5-6급	.763±.867			
	합계	.699±.796			
미용관리 욕구 전체	1-2급	3.58±3.52	1.602	.204	-
	3-4급	3.37±3.52			
	5-6급	.534±.663			
	합계	.506±.589			
자기효능감	1-2급	2.62±2.82	2.021	.135	-
	3-4급	2.76±2.73			
	5-6급	.675±.806			
	합계	.553±.720			

**p<.01

2) 미용관리 욕구성향과 자기효능감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미용관리 욕구성향과 자기효능감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는 <Table 24>에 제시하였다.

미용관리 욕구성향과 자기효능감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과 외모 인식은 $r=.284(p<.01)$, 외모태도는 $r=.415(p<.01)$, 사회적 요인은 $r=.182(p<.01)$, 미용관리 행위는 $r=.354(p<.01)$, 외모 관심도는 $r=.203(p<.01)$, 미용관리 욕구 전체는 $r=.373(p<.01)$ 로 나타나 정적인(+)관계를 보여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외모인식, 외모태도, 사회적 요인, 미용관리 행위, 외모 관심도, 전체 미용관리욕구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4. 미용관리 욕구성향과 자기효능감 상관관계

	외모인식	외모태도	사회적 요인	미용관리 행위	외모 관심도	미용관리 욕구 전체
자기효능감	.284 (**)	.415 (**)	.182 (**)	.354 (**)	.203 (**)	.373 (**)

** $p<.01$

7. 장애등급에 따른 자기효능감

연구 대상자의 장애등급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대한 결과는 <Table 25>에 제시하였다. 장애등급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1-2급(M=3.38)이, 5-6급(M=3.24), 3-4급(M=3.17)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5. 장애등급에 따른 자기효능감

	N	M±SD	F	p
1-2급	99	3.38±.673		
3-4급	96	3.17±.798	2.068	.129
5-6급	35	3.24±.553		
합계	230	3.27±.716		

V. 고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고 노령기 장애가 증가하며,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산업재해 증가 등, 관련 장애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여성장애인의 인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여성장애인 복지증진 방안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 2006) 그러나 장애여성의 문제는 학계에서나 사회운동 단체에서나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여성학자들 사이에서도 소외되고, 차별받는 계층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의된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장애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잘 드러낸다.(김경화, 1998)

시대적 변화와 함께 생활전반에 걸쳐 차별적인 여성들의 여권의식과 장애인의 복지욕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여성 및 장애인 문제가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생존의 문제가 아닌 삶의 질이 주 관심사로 떠오를 만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여성의 여성성 회복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性, 美에 대한욕구는 무시되어 왔다.(안종숙, 2007) 이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과 열등감으로 인해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신체적 이미지는 정신적 건강을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정경숙, 1999)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정신적인 긴장은 증가되며, 행동이 소극적, 퇴행적으로 되기 쉬워(Hilton 1992: Ruth 1994)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못하게 되며 고립되기 쉽다. 사회활동의 적극적 의지는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추영미, 2005) 그러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자기효능감 및 정신건강 또한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남정자, 조맹제, 1997) 이는 장애인들은 생물학적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신적, 사회적 문제로 발전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많은 곤란을 겪게 되기 때문이

다.(한상미, 1997) 한편, 미용행동이 인간의 정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정경숙, 서경현, 2002), 화장법과 의복법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혜경, 유태순,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여성의 여성성회복과 더불어 긍정적 자기이미지 증폭의 기회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일조 할 방법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두며, 장애여성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므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분포 '30~40대'가 전체의 50%를 차지하였으며,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졸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48.7%가 '기혼'이며, 13.4%는 '결혼 후 이혼', '별거', '사별'이었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와 무직'이 높게 나타났고, 경제수준은 '100만원 미만'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미희(2002)의 연구에서도 학력에서 평균치 보다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소득수준에서 '1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이 여성 층에 국한되어 있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평균임금이 남성보다 낮음을 감안할 때,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통계 치로 판단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비단 장애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여성 전체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대상자들이 미용의 관심도에 대한 인식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특정해본 결과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시대적 흐름과 관련하여 장애여성들도 외모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성 역할의 진보와 더불어 미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장애가 심할수록 미용의 관심도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여성의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 관심의 이유로는 장애가 심할수록 '외모를 가꾸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이며, 장애가 덜할수록 '심리적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적인 외모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행동으로는 헤어스타일, 피부 관리, 화장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가 심할수록 헤어스타일을 선호하고, 장애가 덜할수록 피부 관리를 선호했다. 미용관련 정보에 대한 습득 경로를 살펴보면, 장애가 심할수록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으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 반면 장애가 덜한 등급에서는 주위 친구, 가족, 친지에게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은주(2001)의 연구에서 미용에 관한 원천으로 대중매체나 가족, 친지, 친구가 미용정보의 원천임을 나타낸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피부에 대한 중요성은 장애가 심할수록 인식도가 더 높지만 실제로 피부 관리실 방문여부는 장애가 낮은 등급에서 조금 더 이용한다는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장애가 높은 등급에서는 방문을 안 하는 이유 중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이유로 들었다. 신체가 자유롭지 못해 이동의 어려움과 비장애인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에 대한 해결이 된다면 장애여성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장애등급에 따른 피부문제로 인한 우울감은 장애가 높은 등급이 장애가 낮은 등급 보다 우울감을 가끔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결과로 봤을 때, 미용은 심리적 기능에 영향을 있음을 알 수 있다.

헤어의 중요도와 관련해서는 장애가 낮은 등급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헤어관리실 이용실태는 모든 등급에서 ‘두 달에 한번’이 50%로 높는데 비해 전용수(2007) 청각장애와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미용실 방문횟수가 ‘6개월에 한번 이하’(37%), ‘1년에 1번 이하’(26%), ‘두 달에 한번 이하’(20%)의 순으로 일반 여성들은 ‘3개월에 한번 이상’이 80%(윤대수 2006)인 것과 비교해 낮은 빈도임을 알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헤어스타일이 외모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항목에 있어 우위에 있음을 봤을 때 여성들에게 헤어는 중요한 미적 기능을 하는 요소임에 틀림없고, 관리방법으로

커트, 염색, 퍼머넌트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실제로 가꾸기 위한 행동을 한다고 보여 진다. 헤어관리실 선택 시 중요사항으로는 모든 등급에서 ‘집이나, 직장과 가까운 곳’과, ‘미용사의 기술’을 뽑았고, 장애가 덜한 등급의 경우가 다른 등급에 비해 헤어관리실 선택 시 ‘적절한 관리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네일에서 청결, 길이, 디자인, 색상, 핸드마사지의 요소로 미용이미지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장애가 심할수록 네일 색상과 모양이 미용이미지에 중요하다고 더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의 89.4%로 높게 나타나 미용의 중요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다.

메이크업은 무언의 의사 전달 역할을 하고 사회적 관습이나 예의의 표현이며 신분이나 직업의 표시를 나타내는 연령, 직업, 지위 등의 사회적 기능은 물론 “개성을 표출하는 제 2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문정혜, 2004)하고 있다. 이렇듯 화장은 “여성들의 사회적 기능의 측면에서 외모를 좀 더 단정하고 보기 좋은 인상을 연출하여 타인에게 좋은 느낌과 이미지를 부여하여 사회적 적응을 더 유용”(이미희, 2001)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의 개성 표현에 대한 인식증가, 삶의 질에 대한 변화 등에 따라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등급에 따른 메이크업의 횟수로는 장애가 덜할수록 ‘주 1회 이하’ 화장을 하며, 장애가 심할수록 더 자주 화장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유로는 장애가 높은 등급에서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라는 경우가 높은 걸로 봐서 더 자주 화장을 하며 가꾸는 행동으로 보여 진다. 장애가 덜한 등급에서는 ‘기본진환을 위해서’가 높았는데 메이크업을 안 하는 이유로는 장애가 심할수록 ‘경제적 이유’가 40.0%, ‘방법을 몰라서’가 60.0%를 차지하며, 장애가 낮은 등급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50%로 많았다. 장애가 높은 등급인 1-4급에서 ‘주 6회 이상 메이크업을 한다’는 결과가 62.0%로, ‘매일 화장을 한다’가 과반수를 넘는 일반인에 대한 보고(최남식 2003; 이해영 2004;

박미경 2005)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의 미용의 관심도, 중요도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미용의 관심이 많을수록 미용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미용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미용과 자기효능감의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연숙(2007)의 연구에서 외모만족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또한 외모만족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남에게 자신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현재 행동이나 미래행동, 과제수행에 대해 더 긍정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었다는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자기효능감과 외모만족도와의 관계를 예견해 볼 수 있겠다.

신체적 자기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정신적 안정성이 높으므로, 외모만족도는 자아수용과 자아정체감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Simmons et al., 1975) 그러므로 신체적 열등감을 가질 경우 열등감은 부정적 사고와 자신감을 없애고 사회적응을 곤란하게 하여 정서적 불안(이경희 1992)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며, 좌절감은 위축감과, 우울을 경험하게 한다. 따라서 이들은 우선적으로 그들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도록 하며,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전용수, 2007) 미용관리 욕구 성향 중 외모인식, 외모태도, 미용관리행위, 외모관심도의 경우 모든 장애등급에서 평균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장애가 심할수록 사회적 요인에 대해 더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유수정(2010)의 연구 중 미용관리 성향에서 외모관심도, 사회적 요인, 미용관리 행위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외모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여성이라는 대상자의 특수성에 미루어 볼 때, 사회적 요인의 인식이 다른 부분에서 보다 우선시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미용관리 욕구성향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미용관리욕구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긍정적인 기대가 높

을수록 외모향상을 추구하며, 기본적인 미적 욕구를 통하여 긍정적인 효능
신념과 효능기대를 갖게 된다. 이는 새로운 도전심리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
주며,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 연출을 통한 행복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신
에 대한 신뢰감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전용수 2007)
미용관리 현상은 외적인 치장뿐 아니라 내적, 정신적인 자아의 회복을 위한
모색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간에게 긍정적인 자아인식과 자신감을 갖게 하
는 내적관리이다.

미에 대한 욕구와 관심은 날로 고조되고 있으며, 사회가 다변화 되고 개
성이 중시 되면서 자신을 나타내 다른 사람에게 인식시키려는 경향이 증가
(양은순, 2002)하고 있다. 매력적인 외모를 지향하는 것은 모든 여성의 기본
적인 욕구라고 해석할 수 있다. 타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할지 모른다는 두려
움 때문에 내면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낮고, 외면적으로는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서 고립과 배척을 경험하고 있어(심상옥, 2002) 미용행동은 외적인 변화
에 대한 만족감은 성취 효능감을 강화하게 되고,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형성하는 기저가 된다.(전용수, 2007) 미용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하고 같은 외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정서적이고 인지적
인 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정경숙, 서경현) 여성
에게 있어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Cash, 1990)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장애여성들도 비장애인 못지않게 미용
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었으며, 그 중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
었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미용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외모
인식, 태도, 사회적 요인, 미용관리 행위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미용행동이 긍정적 역할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긍정
적 자기 이미지 연출을 통해 행복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향상시키고, 욕구 해소를 도모해 그들의 건강유지는 물론 자

신에 대한 신뢰감과 자기효능감 향상 증진에 도움을 주는 장애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토록 제도화 하는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야한다.

Cozzarelle(1993)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기효능감은 자아존중감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미용과 관련된 변인들과 자기효능감이 밀접하고 다소 복잡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미용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선행연구에서 최연숙(2000)은 외모 가꾸기 훈련이 입원 중인 만성정신분열 환자의 독립적인 외모 가꾸기 수행 능력 및 외모 만족,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조의선(2007)에 의하면 얼굴 표정, 헤어스타일, 화장, 복장 등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이미지 메이킹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효과적이라 하였고 전용수(2007)의 연구에서는 미용 교육 프로그램은 성인여성장애인에게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신건강에 효과적이라 하였다. 또한 안종숙(2007)의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메이크업 행동과 자아존중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보고하였다. 이화순(1997)의 연구에서도 화장, 피부 및 모발 관리를 잘하는 노인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 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여성들을 위한 미용 관련 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며, 장애여성에 대한 미용에 대한 관심과 현 실태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여성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임의표집방법으로 선정된 복지관을 중심으로 제한되어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여성장애인 전체에게 일반화 할 수 없고, 장애관련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애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제가장애인들은 다루지 않았다. 또한 장애등급에 따른 인원 분포가 고르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는 조사대상자들의 지역의 폭과 장애여성의 미용형태를 좀 더 다각적으로 살피는 연구를 실시한다면,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현대여성의 중요한 자기표현의 수단이자 건강의 하위 요인으로서의 미용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등급에 따른 특성별로 미용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인식, 관심을 기울이는 행동에 대한 이유 분석과 그에 따른 미용관리 형태에 대해 알아보고, 여성장애인들의 미용 욕구 분석 및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2010년 8월 2일’부터 ‘2010년 9월 17일’ 사이에 ‘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하는 장애인 복지관 중 임의표집 방법으로 추출한 장애여성 230명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장애등급에 따른 일반적 특성 분석 결과, 연령별로는 ‘30-39세’가 많았고, 학력별로는 ‘고졸’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48.7%로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전업주부가 높게 나타났다($p < .01$).

둘째,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 관심도는 장애가 심할수록 미용의 관심도 또한 높아졌다($p < .05$). 미용의 중요도는 3-4급에서 인식의 정도가 높았고, 미용에 관심의 이유로는 장애가 심할수록 ‘외모를 가꾸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고 장애가 낮을수록 자기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위해’ 미용을 가꾸고 있었다. 장애가 높은 등급에서 미용관심도가 낮은 여성들은 ‘외모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와 ‘외모를 가꾸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느껴져서’라는 이유가 비교적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장애등급에 따라 경험한 외모관리 행동 중 헤어스타일 변화가 높게 나타났고,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헤어스타일 변화를, 낮은 등급에서는 피부관리를 가장 선호했다. 월 외모관리 비용으로는 '5만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미용관련 정보에 대한 습득 경로는 높은 등급에서는 대중매체가 낮은 등급에서는 친구, 가족, 친지가 높게 나타났다($p < .01$).

넷째. 장애등급에 따른 피부, 헤어, 네일, 메이크업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등급에 따른 피부 관리실 방문 여부는 73.0%로 '아니오'가 높았다. 대부분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이유인데, 장애가 심할수록 '장애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방문을 안한다'고 한다. 피부 관리실은 주로 장애가 낮은 '5-6급'에서 많이 이용하지만 '3개월에 1회' 정도로 이용횟수의 기간은 길다. 자신의 이미지에 피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3-4급'에서 피부 관리실을 다니는 사람에 한해 관리횟수가 '주 1회'로 다른 등급에 비해 자주 이용하는 편이며, 이용 시기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이고, 모든 장애등급에서 '주름 및 노화 방지를 위해' 방문하며, '필요성에 의해' 피부 관리실을 찾게 된 계기로 뽑았다.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적절한 관리비용'을, '3-6'급은 '집이나 직장과 가까운 곳'을 피부 관리실 선택 시 중요사항으로 꼽았다. 피부 문제로 인한 우울감은 장애가 낮은 경우 우울감은 거의 없지만, 장애가 심한 등급에서는 우울감을 가끔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 .05$).

2) 헤어가 미용이미지에 미치는 중요도는 장애가 낮은 등급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모든 등급에서 두 달에 한번 헤어관리를 받는 경우가 높았고, 관리 방법으로는 커트가 68.1%로 높았다. 모든 장애등급에서 '집이나, 직장과 가까운 곳'이나 '미용사의 기술'을 중요사항으로 선택했으나 장애가 낮은 등급에서만 '적절한 관리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했다($p < .05$).

3) 장애등급에 따른 네일 관련 미용이미지 중요도에 대한 결과는 장애가

심할수록 네일 색상과 모양이 미용이미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p<.01$).

4) 모든 등급에서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가 89.6%로 높고, 장애가 낮은 등급에 비해 장애가 높은 등급에서 더 자주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p<.001$).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주로 스킨, 로션, 에센스 정도의 기초화장과 낮은 등급에 비해 색조를 좀 더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메이크업의 목적으로는 장애가 심할수록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장애가 낮은 등급에서는 ‘기본 전환을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경우가 높았다($p<.001$).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방법을 몰라서’이고, 낮은 등급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높았다($p<.05$).

다섯째, 전체 연구 대상자의 미용의 관심도와 중요도는 $r=.383(p<.01)$ 로 정적인(+)관계를 보여 미용의 관심이 많을수록 미용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효능감과 미용의 관심도는 $r=.324(p<.01)$, 미용의 중요도는 $r=.345(p<.01)$ 로 정적인(+)관계를 나타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미용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형태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피부의 경우 ‘1-2급’이 높게 나타났고, 헤어스타일의 경우 ‘3-4급’이, 네일의 경우 ‘5-6급’이, 메이크업의 경우 ‘1-2급’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장애등급에 따른 미용관리 욕구성향에서 장애가 높은 등급일수록 낮은 등급에서 보다 사회적 요인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p<.01$). 전체 연구대상자의 미용관리 욕구성향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정적인(+)관계를 보여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외모인식, 외모태도,

사회적 요인, 미용관리 행위, 외모 관심도, 전체 미용관리욕구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덟째. 장애등급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유의적은 아니나 장애등급이 '1-2급'이 3.38, '5-6급'이 3.24, '3-4급'이 3.18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장애여성들의 장애등급이 높아질수록,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여성들일수록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외모관리에 대한 표현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욕구이며 전반적인 삶의 질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나 동정의 대상이 아닌 장애여성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미용관리프로그램의 개발되어 적용한다면 장애여성들을 위한 안녕과 복지의 초석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1. 강운경, [크리스찬 대학생들의 외모지상주의와 자아정체성과의 관계], 충신대학교 상담대학원:석사논문, 2004
2. 김경심,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석사논문, 2001
3. 김기화, [시각장애청소년을 위한 자기성장프로그램이 자아존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논문, 2001
4. 김새한별, [성격유형별 웰빙 및 미용관리성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석사논문, 2006
5. 김선령, [성인여성의 피부관리정도에 따른 의복행동 및 자기효능감과 관계],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2004
6. 김세안, [여성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2004
7. 김소희, [여성지체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1998
8. 김은주,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2001
9. 김창은, [장애인의 스포츠 여가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0. 김태현, [혈액투석환자의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6
11. 김홍규, [미용과 커뮤니케이션], {한국미용학회지}, 제 3권 1호, pp.5-8, 1997
12. 백은령,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환

- 경요인과 사회통합정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박사논문, 2003
13.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방안을 위한 연구], 2006
 14. 보건사회연구원, [등록 장애인 현황, 성별분포],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08
 15. 손미혜, [고등학생의 외모에 대한 태도와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논문, 2008
 16. 손현진, [여성들의 피부 관리실 이용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논문, 2008
 17. 신명자, [여대생의 미용 행태 및 그에 따른 건강 위해 실태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2000
 18. 안승준, [지체장애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석사논문, 2007
 19. 안중숙, [여성 장애인의 메이크업 행동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Vol.13, No.1, 호서대학교, 2007
 - 20 양은순, [일반인이 지각하는 피부미용관리에 대한 주관성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석사논문, 2002
 21. 오혜경, 김정애 공저,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학지사, 2000
 22. 유수정, [대구지역 여성들의 웰빙 행동과 미용관리 성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0
 23. 윤소영, [여대생의 외모관리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연구: 헤어, 피부, 화장, 미용성형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석사논문, 2007
 24. 이미희, [여성 미용행태에 관한 연구: 화장 및 미용성형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석사논문, 2002
 25. 이상영, [중년 여성의 외모 관심도 및 화장품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동명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2009
 26. 이소정, [20~30대 여성의 미용 관심도와 변화 수용에 관한 연구], 숙명여

- 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7. 이우승, [장애인의 정보이용격차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석사논문, 2007
 28. 이유미, [장애 관련학과와 장애 비관련학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장애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비교], 대전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2006
 29. 이은복, [장애인 근로자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가 작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2008
 30. 이정순,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2006
 31. 이현정, [지체장애인 여성의 체형특성 분석 및 기능성 의복 디자인 연구], 중앙대:석사논문, 2004
 32. 이현정, [지체장애인 여성의 체형특성 분석 및 기능성 의복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박사논문, 2005
 33. 장미숙, [여성의 외모관리와 체형관리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박사논문, 2010
 34. 전용수, [미용교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정신건강증진에 미치는 영향 : 청각장애 여성과 정신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계명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 2007
 35. 정경숙, 서경현, [미용에 대한 만족과 관심 및 자기효능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2009 구로구 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 한국미용학회지, 성프란치스코장애인종합복지관, 2009
 36. 정복자,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자존감, 신체적 자아효능감 및 비만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박사논문, 2005
 37. 조은, [여성의 화장 행동이 대인 관계 및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효용

- 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3
38. 차정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39. 허진아, [여고생의 미용 행태에 관한 연구: 피부 관리 및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Thesis(M.A.), 2004
40. 홍성임, [소득에 따른 중년층의 외모관리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아트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2007
41. 황령희, [정보접근과 사회적 지지가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2002
42. 황주연, [여성장애인의 여가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43.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pp.191-215, 1977
44. Cash Thomas F. "Thomas Pruzinsky, Body Images", Guilford Publications, Inc 1990
45. Erickson, M and C.C. Upsjur. "Caretaking burden and social support: Comparison of mothers of infan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4: pp.250-258, 1989
46. Hanson, M.J. and M. Hanline, "Parent in a child with a disability. A longitudinal study of parent stress and adaptation",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4(3): pp.234-248, 1990
47. Hilton, B. A. "Perceptions of Uncertainty: Its relevance to life-threatening and chronic illness", *Critical Care Nurse* 12(2): pp.70-73, 1992.
48. Iarskaia-Smirnova. E.R., and P.V. Romanov. "The Problem of Access to

- a Higher Education for Handicapped People", *Russian Education & Society* 48(8):pp.54-71, 2006.
49. Pope, A, "Disability on America: Toward a National Agenda for Prevention", National Academy Press 1991
 - 50 Schunk, D. H. "Participation in goal setting: Effects on self-efficacy and skills of learning disabled children".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9(3): pp.307-316, 1985
 51. Schunk, D.H. "Modeling and attribution effects on children's achievement a self-efficacy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1):pp.93-105, 1981
 52. Silverman, S. S. "Clothing and appearance, their psychological implications for teen-age girls", N. Y: Bureau of publication, 1945
 53. Simmonds, R.G. & Rosenberg, F, "Sex, sex roles, and self-ima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 pp.22-258, 1975.
 54. Solberg, V S, O'Brien, K., Villareal, P., Kennel R., & Davis, B. "Self-efficacy and Hispanic college student: Validation of the college Self-efficacy instrument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15, pp.80-95, 1993

ABSTRACT

An Investigation of Beauty Treatment for Disabled Women & and Study on Their Self-Efficacy

Kim, Su-Jin

Major in Skincare and Obesity Management

Department of Cultural Industry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desire of disabled women living with double whammy, physical handicap and social alienation in places without welfare for pursuing most basic beauty has been disregarded.

There have been continual try in many social fields to draw out public concern and consciousness change for the people being excluded form social institutional protection through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m for years, but in fact, they are still out of the cocoon of social integrated welfare enhancement .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no studies on beauty treatment for the disabled women, and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improving their self efficacy, offering them the opportunity to recover their femininity and grow their positive self image and submitting basic data for preparing

practical program for the disabled women.

This study selected 230 disabled women from the welfare centers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area through random sampling method a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nd questionnaire was carried out from 2010 August 2~September 17 based on the literature and previous studies modified and supplemented by this researcher.

Collected data were put into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as valid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to see their interest in beauty treatment, general traits due to disability rating, actual condition of beauty treatment and perception gap, cross-tabulations $\chi^2(\rho)$, one -way ANOVA to see their self efficacy and the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as conducted for significant results.

Empir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at the significant level at $p < .05$, $p < .01$, $p < .001$, statistical treatment with SPSSWIN 12.0 program. Below are the findings from the study.

First,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ir general trait depending on disability rating appeared to be 30-39 years old in age, high school graduates in academic background(51.7%), married in marital status(48.7%) and housewives in occupation($p < .01$).

Second, in their interest in beauty treatment by disability rating, the severer rating was directly proportional to it($p < .05$). Disabled women at 3-4 rating were higher in recognition level with the explanation for that

such as the disabled women with severer rating 'being interested in taking care of their appearance' and disabled women with lighter rating 'for mental satisfaction'. Disabled women with higher rating and lower interest in beauty care was 'appearance is not important' 'taking care of beauty cost so much money' but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ird, they showed much great change in their hair style among appearance care due to disability rating, and disabled women with higher rating cared heir style much while the disable women with lower rating preferred skin care. Most of them spend less than 50thousand won for beauty care, and those with higher rating get the beauty information through mass media, while lower rating get the information through friends, family or relatives($p < .01$).

Fourth, below 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skin, hair, neil and makeup care due to their disability rating.

1) 73.0% of them answered 'no' for the question of skin care center asked by their disability rating and the most of the reason were from economical, time factors, and another reason for that was 'inconvenience by disability'.

Those with the rating 5-6 most were the highest in using skin care center, about once every 3months, quite a long interval. Disabled women with their rating 3-4 who have feeling that skin is important factor of their image appeared to go to the beauty center once a week, more frequent compared with other ratings, and they had such treatment

'when they had enough time' and most of them used the skin care center for anti wrinkle and aging care with the feeling such treatment is necessary. Women with higher rating in their disability wanted the reasonable treatment, and 3-6 rating the skin care centers more closer to their houses or working places. Most of those with lower rating don't feel gloomy because of skin problem, while those with severe rating feel that often($p < .05$).

2) Those of lower rating felt hair style great in importance in beauty image, and the highest frequency for the most rating in getting hair treatment was twice a month, for getting their haircut(68.1%). Every rating picked out the beauty shop 'close from their homes or work places', or 'beauticians' skill as the important matters except lower rating who thought 'reasonable treatment cost' more important($p < .05$).

3)The nail related beauty image depending on their disability rating was the women with severer disability made much of nail color and shape($p < .01$).

4) 89.6 % of disabled women with most rating appeared to put on make up, and higher rating was more frequent in putting on make up ($p < .001$). Disabled women with higher rating used make up base such as skin, lotion, essence more often and put on make up more often compared with lower rating. In relation to the purpose of make up, severer rating said 'to look beautiful', 'to make favorable impression toward other people, while lighter rating said 'for the change of their feeling'($p < .001$). In relation to their reason for not to put on make up, severer rating said 'economical burden and not knowing the way', while lighter rating said 'they don't feel to do so'($p < .05$).

Fifth, the interest and importance of the subjects for beauty care appeared to be $r=.383(p<.01)$, positive relation, that is, their higher interest in beauty care wa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ir attitude in making much of beauty care, and their relation of self efficacy with interest in beauty care was $r=.324(p<.01)$, and with importance in beauty care was $r=.345(p<.01)$, a positive relation indicating the self efficacy being directly proportional to their interest in and feeling of importance for beauty care.

Sixth, regarding their satisfaction with beauty care patterns depending on disability rating, 1-2 ratings were the highest for skin, 3-4 ratings for hair style, 5-6 ratings for nail and 1-2 ratings for male up.

Seventh, regarding their desire for beauty care depending on disability rating, severer rating was more active for social factors than lighter rating($p<.01$). the correlation of their desire for beauty care and self efficacy was positive state, that is, higher self efficacy wa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desire for beauty care such as their consciousness of appearance, social factors, beauty care behavior, interest in appearance.

Eighth, self efficacy according to disability rating wasn't significant, but it appeared to be 3,38 for 1-2 ratings, 3,24 for 5-6 ratings and 3,28 for 3-4 rating in order.

This study aims the efforts of detecting of beauty treatment state for

the disabled women in theoretical view, revealing practical reality of disabled women and proposal of practical plans for them. Development of various program, institutional support based on information offering, social base install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along with social back up for the possibility for such environment build up would be prepared for th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women with their desire for beauty care.

Appendix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피부비만학과 김수진입니다.

본 설문지는 석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것으로 “ 장애여성의 미용실태 조사와 자기 효능감에 관한 연구”에 대한 기본 자료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여러분을 위한 연구에 필요한 것이며, 정답은 없으므로 솔직하고 성의 있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셔서 연구에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번호에 " V" 표 해주십시오.

1. 연령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2. 키 ① 140-149cm ② 150-159cm ③ 160-169cm ④ 170cm 이상
3. 체중 ① 40kg 이하 ② 41-50kg ③ 51-60kg ④ 61-70kg ⑤ 70kg 이상
4. 학력에 대하여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졸 ④ 고졸 ⑤ 전문대졸 ⑥ 대졸 ⑦ 대졸이상
5. 귀하의 장애 등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6. 귀하가 겪고 계신 장애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지체장애 ② 시각장애 ③ 청각장애 ④ 언어장애 ⑤ 정신지체
⑥ 뇌병변장애 ⑦ 발달장애 ⑧ 정신질환 ⑨ 심장장애 ⑩ 신장장애
7. 귀하의 결혼 상태는 ?
① 결혼 ② 미혼 ③ 독신(이혼, 별거, 사별)
8. 귀하의 직업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무직 ②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파트타임) ③ 정규직
④ 학생 ⑤ 전업주부 ⑥ 기타

9.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10.귀하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 되십니까 ?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만 원 이상

11.귀하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 ① 모두 혼자서 가능하다 ② 대부분 혼자서 가능하다
③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④ 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음은 미용에 대한 관심도 및 미용서비스 이용현황입니다.

12.귀하의 미용(피부, 헤어, 메이크업, 네일 모두 포함)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 12번 문항에서 1,2 번을 선택한 경우만 체크해 주세요.

12-1.귀하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낮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외모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② 외모 보다 다른 더 중요한 것이 많아서
③ 외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다른 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④ 외모를 가꾸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느껴져서
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부담스러워서
⑥ 방법을 몰라서
⑦ 기타

※ 12번 문항에서 4,5 번을 선택한 경우만 체크해 주세요.

12-2.귀하가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심리적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 ②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유리한 점이 많으므로
- ③ 외모를 가꾸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 ④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 ⑤ 외모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본인이 가진 핸디캡 (불리한조건, 곤란, 불이익,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 ⑥ 남들에게 보여 지는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 ⑦ 기타

13.귀하는 미용이 본인에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14.외모관리행동 중 귀하가 경험하신 것을 모두 골라 체크해주세요.

- ① 헤어스타일 변화 ② 모발. 두피관리 ③ 피부 관리(얼굴) ④ 경락, 전신관리
- ⑤ 발마사지, 손 마사지 ⑥ 네일, 페디큐어 ⑦ 화장
- ⑧ 미용성형 (문신, 퍼머넌트, 성형) ⑨ 기타

15.귀하의 이상적인 외모 관리를 위해 선호하는 행동 순위를 ()안에 넣어주세요.

예) 헤어스타일 (2) 피부 관리 (3) 화장 (1) 네일 (손 ,발톱) (5) 발마사지 (4)

헤어스타일 () 피부 관리 () 화장 () 네일 () 발마사지 ()

16.귀하는 한 달에 외모관리 비용 (헤어, 피부 , 화장 ,네일 등 포함) 으로 대략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 ① 1만원 미만 ② 1-3만원 미만 ③ 3-5만원 미만
- ④ 5-10만원 미만 ⑤ 10-20만원 미만 ⑥ 20만 원 이상

23.피부 관리실을 찾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 ① 필요성을 느껴서 ② 배우자 및 이성으로부터 편견 혹은 권유
- ③ 건강상의 문제로 ④ 주변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24.귀하께서 피부 관리실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집이나, 직장과 가까운 곳 ② 교통이 편리한 곳 ③ 적절한 관리비용
- ④ 서비스 및 친절도 ⑤ 관리실의 시설 및 환경
- ⑥ 관리사의 피부 관리 능력 ⑦ 기타

25.피부 문제 등으로 우울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우울한 적이 없다 ② 가끔 우울했다
- ③ 대체로 우울했다 ④ 우울 정도가 심하다

※ 헤어, 네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해당되는 부분에 “v”해주시시오.

26.귀하는 헤어가 귀하의 미용이미지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27.미용실에서 헤어관리는 어느 정도 자주 하십니까?

- ① 한 달에 한번 이상 ② 두 달에 한번 ③ 6개월에 한번 ④ 1년에 한번 ⑤ 기타

28.헤어 관리를 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해당란에 모두 표시)

- ① 퍼머먼트(파마) ② 커트 ③ 염색 ④ 코팅, 헤어 매니큐어
- ⑤ 모발관리 (두피마사지 트리트먼트) ⑥ 드라이 ⑦ 기타

29. 귀하께서 미용실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집이나, 직장과 가까운 곳 ② 교통이 편리한 곳 ③ 적절한 관리비용
- ④ 서비스 및 친절도 ⑤ 시설 및 환경 ⑥ 미용사의 기술

30.다음 네일 관련 항목들이 귀하의 미용이미지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네일 청결	①	②	③	④	⑤
네일 길이	①	②	③	④	⑤
네일 색상	①	②	③	④	⑤
네일 모양	①	②	③	④	⑤
핸드마사지	①	②	③	④	⑤

※ 메이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해당되는 부분에 “v”해주세요

31.귀하는 메이크업이 귀하의 미용이미지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32.귀하는 화장을 하십니까? (기초화장 포함 :스킨 , 로션, 에센스 등)

예 (☞33~35번) 아니오 (☞32-1번으로 가십시오)

32-1. 화장을 안 하시는 이유는?

- ① 경제적 이유 ②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③ 시간이 없어서
④ 방법을 몰라서 ⑤ 화장품을 혼자서 구입하기 힘들어서 (장애가 이유)
⑥ 장애로 인해 혼자 화장하기 힘들어서 ⑦ 기타

33.화장의 빈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주1회 이하 ② 주2~3회 ③ 주4~5회 ④ 6회 이상

34.귀하는 어느 정도의 화장을 하십니까? (해당란에 모두 표시)

스킨, 로션, 에센스	①	투원케익 (파우더)	④	아이세도	⑦
메이크업베이스	②	눈썹화장	⑤	마스카라	⑧
화운데이션 또는 BB크림	③	입술화장	⑥	볼 화장	⑨

35.귀하가 화장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① 맨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② 결점을 커버하고자
③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④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⑤ 기분전환을 위해서 ⑥ 화장으로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서
⑦ 기타

36.다음은 귀하의 미용형태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해당되는 부분에 “v”
해주세요.

문항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피부	①	②	③	④	⑤
헤어스타일	①	②	③	④	⑤
네일	①	②	③	④	⑤
화장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미용관리 욕구” (외모관리 인식 및 태도 포함)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V” 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전적 으로 그렇다
1	사람들은 대체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상대방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외모를 칭찬해 주는 것이 기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외모에 대하여 자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외모에 대하여 불만족하거나 자신이 없을 때 미용을 통해 가꾸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외출하기 전에 나의 모습이 괜찮은지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외모에 신경을 안 쓰고 나가면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인다.	①	②	③	④	⑤
9	외출 전 준비하는 시간이 길다.	①	②	③	④	⑤
10	외모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을 보면 사치라는 생각이 들어 거부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즐겁고 멋지게 살기 위해 피부와 몸매관리를 하는 여성을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2	좋은 피부를 갖는 것은 외모에 자신감이 생겨 이성에게 호감을 갖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젊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유익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좋은 피부를 위해 꾸준히 관리를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주름방지, 미백, 자외선 차단 등에 관련된 제품을 사용해 본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좋은 머릿결을 유지하기 위해 두피, 모발관리를 받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외모관리에 필요한 용품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외모를 젊게 보이는 화장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외모를 가꾸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외모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1	외모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만나는 것이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지금 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우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외모 중 바꿔야할 부분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자기효능감 척도

귀하는 다음 행위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같은 곳에 O 표해 주십시오.

	문 항	매우 자신이 있다	약간 자신이 있다	그저 그렇다	별로 자신이 없다	전혀 자신이 없다
1	나는 미용과 관련된 것을 좋아하고 잘 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피부 건강을 위하여 기호품 (술, 담배, 커피)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밤에 푹 잘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에 대한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손톱, 발톱관리를 혼자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마사지, 팩을 이용한 피부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피곤하고 힘이 들 때는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건강한 피부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을 식사를 통해 섭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화장에 시간과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헤어스타일 연출을 내 이미지에 맞게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미용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배운다면 실생활에 이용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